

이영수 설교전집

에덴의 메아리

8



사천 년,
아브라함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는 네 인물이 예언되어 있다.
아브라함 이후 이천 년 만에 오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 이후 이천 년 만에 세우심을 받은 두 감람나무.



(재)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에덴의
메아리 8

에덴의 메아리

발행일 | 2012년 3월 7일 초판인쇄

지은이 | 이영수

펴낸이 | 한국기독교에덴성회

펴낸곳 | 에덴성회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전화 | 031-582-7273

※ 문의 한국기독교에덴성회 총무부 031-582-7273

한국기독교에덴성회 <http://edenholychurch.or.kr>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ISBN 978-89-6449-326-7

ISBN 978-89-6449-223-9 (전 19권)

값 15,000원



저자 (1993년 당시)



농산물센터. 교인들에게 생필품과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어진 농산물센터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경춘국도변의 야경. 유스호스텔 올라가는 길에서 본 농산물센터와 스포츠타운

Prologue

“책머리에”

성서에 기록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서 있는’(속4:14) 두 감람나무의 역사가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일어난 지 어느덧 40년이 가까워 오고 있다. 그 규모야 어떻든, 또 남이야 어떻게 평하든, 따르는 가지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일으키신 역사임을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저 아담, 하와에게 악의 세력이 침투한 이후로 어둠이 지배하게 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결코 순탄치 못해 많은 파란곡절을 겪는 가운데, 앞선 역사를 수복 내지 재건하는 나중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온갖 시련과 고난을 하나하나 이겨 나가면서 착착 내실을 다져가고 있다. 그것은 그 주인공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권능뿐

만 아니라, 깊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이다.

이것은 그가 이미 세상에 내놓은 여덟 권의 설교집이 잘 말해 주고 있으며, 거기에는 일찍이 어느 누구도 발설하지 못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줄줄이 담겨 있다. 그 말씀들은 설교집의 발행을 거듭할 수록 점점 그 깊이를 더해 왔으며, 이 8집에서는 주께서 일찍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긴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흰 돌’의 신령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므로 이 설교집에는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소화하기 어려운 대목도 없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초대교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바울의 신학에 의존해 왔으며, 바울의 신학은 4복음서를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4복음서에는 주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다 실려 있는 것이 아니다. 듣는 사람의 심령이 어려서 깊은 말씀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요16:12)

그래서 주님은 지상에서 못하신 말씀을 후에 임할 보혜사 성령에게 미루셨으며, 오늘날 이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아 따르는 양떼들에게 아낌없이 부어 주는 이긴자 감람나무가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말씀은 인간 아무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아무쪼록 이 귀한 말씀에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란다.

1993년 2월 최 현

Prologue

“재판에 즈음하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면서 크고 작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으키신 감람나무 역사에 가지로 부르심을 받아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된 성경 66권 중에는 사단의 눈을 피해 짐짓 가려놓은 부분이 적지 않으나, 이제 때가 때인 만큼 나중 감람나무의 입을 통해 그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진리의 말씀은 설교집 ‘에덴의 메아리’로 계속 발간되고 있으나, 주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좀처럼 깨닫지 못하여 이제야 재판이 나오게

되었다. 몇 군데 잔손질을 한 것은 이미 간행된 설교집 전체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서이다. 이 설교집의 재판을 위해 수고하신 윤상학 박사님께 감사하는 바이다.

2004년 6월 최 현

Prologue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1973년 11월 17일의 첫 예배 이후로, 이영수 총회장의 설교를 모은 설교집이 1, 2년에 한 권씩 엮여 나왔다. 그의 설교는 4천 년간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 드러내고 있다.

성경은 비밀의 책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비밀은 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 마귀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섭리를 알려 주셨다. 그 섭리란 궁극적으로 죄의 근원인 마귀를 멸망시키는 과정이다. (요일3:8) 따라서 당연히 마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여 질문을 던졌다. (눅44:10-11) 만약 마귀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은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성경에 당신의 섭리를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셨다. 그런데 마귀도 알지 못하도록 하신 그 비밀을 과연 인간이 연구해서 알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시대의 일화로 알 수 있다.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조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을 굳이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에 의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그 비밀을 이루어야 할 당사자가 나타날 때 그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요5:39, 눅24:44) 즉,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 주인공임을 밝히신 것이다. 그래서 자주 “때가 되었다.”, “때가 안 되었다.”하시며 당신이 하셔야 할 일정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요2:4, 7:8, 30, 8:20, 13:1)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움직이다 가셨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다.(요19:30)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 이후에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하나님의 우

편 보좌에 앉는 권세를 받으셨다.(행7:55, 사110:1)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셨다.(계5:1, 7) 그 책은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비밀의 책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계5:3)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책을 예수님에게 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시기 위함이다. 즉, 그 계획을 이루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내용을 보시고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다. 예수님은 육으로 계실 때, 사도들이 있던 당대에 재림하실 것으로 알고 계셨다.(마24:34)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담겨 있었고,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신 것이다.(계1:1)

성경에는 예언된 인물이 네 분 있다. 세레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그들이다. 앞의 두 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2천 년 만에 그리고 나머지 두 존재는 4천 년 만에 등장하였다. 계시록은 감람나무를 위한 책이다. 그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감람나무를 예언한 인물이 사도 요한이라는 점에서 감람나무는 사도들보다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감람나무에 대해 알지 못하셨다. 두 감람나무는 이미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예

언하신 존재로,(속4:14) 예수님은 하나님의 책을 보시고 나서 그들이 당신의 보혈로 역사할 존재인 것을 알게 되셨으며, 그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계11:3-4) 그리고 이기는 자가 나오면 감람나무에게 해당하는 언약들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속3, 4장, 계2:7, 11, 17, 26-28, 3:5, 12, 21)

하나님께서서는 이긴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시고 아들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다.(계21:6-7) 그것은 이긴자가 받아서 역사할 생명수 샘물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긴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행자이므로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전에 당신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긴자가 유업으로 받은 생명수 샘물인 것이다.(요7:38)

생명수 샘물이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죄를 씻는 생수다.(속13:1, 12:10) 그렇다면 이긴자는 이 생수로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한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롬3:23)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조차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음부에 가 있어야 했다. 생명수 샘물이 마련되면서, 주께서 그들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계5:9, 마27:52-53) 그들은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 있으며,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자신들이 억울하게 순교당한 원수를 갚게 되느냐고 여쭙었다.(계6:9-10)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너희와 같은 자들의 정해진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라고 하셨다.(계6:11)

그렇다면 그 수란 몇인가? 이 수는 바로 14만 4천이다.(계14:1) 14만 4천에는 구약시대 인물들과 신약시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이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어떤 이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각자 배출된 시대에 따라 그 시대를 주관하신 분의 이름을 받은 것이다. 이들이 바로 하늘 군병이다.(계19:14) 이들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그 수는 아직 차지 않았다. 그 수가 찼다면 이미 세상은 종말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럼 이 수가 언제 차는가? 바로 감람나무가 나타날 때이다. 감람나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수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긴자 감람나무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그 수를 채우는 사명을 받았다. 그는 하늘 군병을 배출시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계7:2-3) 그리고 낮으로 이들을 추수하여 하늘 공간에 들인다.(계14:16)

마귀를 멸망시키고 난 후에는 하늘 군병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계20:4) 이들은 마귀가 다스리던 음부에 갇힌 모든 자들을 끌어내어 심판을 한다.(계20:13) 심판의 결과,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지옥으로 보내어질 자들이 구분된다.(마25:32) 그리고 하늘 군병들은 세세토록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계21:3-5) 즉, 천국은 14만 4천 개의 국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영수 총회장은 세상적으로는 배운 것이 없다. 그러나 그는 하

나님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에 가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다. 영화를 본 사람이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상 중에 가르침을 주시면서, 때가 되기 전에는 입을 봉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전해 봤자 듣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한 군대를 완성하시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조만간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된다.(계 21:1) 모든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지 26세기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20세기 만에 감람나무가 등장하였기에, 기독교인들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몇백 년, 또는 천 몇백 년 전에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섭리라면 누구라도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 중 누가 그것이 자신들의 멸망을 가져올 줄 알았겠는가? 노아가 사명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죄악에 빠진 인류를 멸하셨던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영수 총회장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아무쪼록 흘러들지 말고, 베뢰아 사람들처럼, **(행17:11)** 이영수 총회장의 말과 성경을 비교 검토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구원의 방주로 나아오길 기대한다.

설교전집을 준비하면서 이미 발간된 설교집 내용을 재검토하여 개정된 국문법을 적용하고,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첨삭을 하였다. 또 첫 설교집이 나온 지 40년 가까이 되므로, 그동안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말씀도 발전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창기 성회장님의 도움이 컸다.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편저자에게 있음을 밝히며, 독자의 질책을 바란다.

2011년 교육학박사 윤상학

차례



Prologue 책머리에 ... 06
재판을 즈음하여 ... 8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 10

Part 01.

보혜사의 인도를 받아

- 01 아담, 하와의 범죄와 하나님의 역사 22
- 02 일곱째 천사와 하나님의 비밀 28
- 03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32
- 04 하나님은 왜 이긴자를 필요로 하시는가? 36
- 05 인간의 피는 점점 더러워지고 있다 44
- 06 다른 보혜사 성령이란 무엇인가? 49
- 07 보혜사 성령과 이긴자 (1) 55
- 08 보혜사 성령과 이긴자 (2) 63
- 09 보혜사 성령과 이긴자 (3) 69
- 10 십자가는 말한다 76

Part 02.

감람나무 그늘에서

- 11 선악과에 대하여 90
- 12 하나님의 역사와 이긴자 98
- 13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106
- 14 주님은 왜 알곡성전을 지으라고 지시하셨는가? 112
- 15 세마포에 대하여 119
- 16 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가? 126
- 17 음부의 열쇠에 대하여 132
- 18 영적 전쟁에 대비하라(1) 138
- 19 영적 전쟁에 대비하라(2) 145
- 20 주님은 어찌하여 '길'이신가? 154

Part 03.

은혜의 단비에 젖어

- 21 영의 눈을 뜨라 164
- 22 빛과 어둠의 싸움 172
- 23 선한 일에 낙심치 말라 177
- 24 보혜사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184
- 25 제 2의 도약을 위하여 190
- 26 바울 신학과 감람나무 신학 197
- 27 하나님의 뜻을 알라! 204
- 28 한 때, 두 때, 반 때에 대하여 213
- 29 솔로몬 성전과 알곡성전 219
- 30 우리의 갈 길 224

Part 04.

승리의 개가를 올릴 때까지

- 31 이긴자와 네 생물 232
- 32 마귀를 대적하라 240
- 33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245
- 34 “임금의 귀는 당나귀 귀!” 252
- 35 계시록의 두 여인에 대하여 259
- 36 “내 팔을 들어 달라!” 269
- 37 하나님의 역사와 전략 277
- 38 선한 싸움에 동참하라 287
- 39 ‘흰 돌’의 역할 295
- 40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재! 301



(재)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Part 01.

보혜사의 인도를 받아



1. 아담, 하와의 범죄와 하나님의 역사 · 2. 일곱째 천사와 하나님의 비밀
· 3.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 4. 하나님은 왜 이
긴자를 필요로 하시는가? · 5. 인간의 피는 점점 더러워지고 있다 · 6.
다른 보혜사 성령이란 무엇인가? · 7. 보혜사 성령과 이긴자 (1) · 8. 보
혜사 성령과 이긴자 (2) · 9. 보혜사 성령과 이긴자 (3) · 10. 십자가는 말
한다

Chapter 01.

아담, 하와의 범죄와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에덴동산의 큰 이변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야 했으며, 이긴자도 그 때문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산속에 알곡성전을 따로 지어 예배를 보게 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잃었던 에덴동산의 복귀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1:26)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한동안 이들은 그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에덴동산을 완전히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동산의 ‘중양에’ 선악과나무가 자라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이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당부하시고,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창3:3) 이 선악과가 에덴동산의 ‘중양’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 과일 나무는 처음에 누가 심은 것일까요?

거룩한 에덴동산에 먹으면 죽는 과일이 있고, 그것도 한복판에 심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강한 도전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반대 세력을 만드실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생명과일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직후부터 마귀의 도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력을 제거하고 홀로 영광을 받고자 인간을 지으셨으니, 마귀가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마귀는 간교한 뱀을 내세워 먼저 하와를 꼬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창3:4-5)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처럼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야가 넓어져 악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만 알았습니다. 즉 하나

님의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마귀의 존재를 알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의 존재를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을 사이에 두고 양자 간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는 분야가 넓어지면 하나님에게는 그만큼 불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던 마음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순순히 지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하와는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어도, 마귀의 앞잡이인 뱀의 말대로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 선악을 아울러 알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마귀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고,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대단히 못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와는 마귀의 말이 맞고 하나님의 말이 틀린다고 생각하여,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은 자기의 경험을 말하고 그 과일을 쥐 먹게 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자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가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창3:7)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든 것은 마귀를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진 신체상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 하와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 후손에게 마귀의 세력이 침투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결코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도 유혹하여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실력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은 강한 지배세력에 마지 못해 끌려가는 것뿐입니다.

그럼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선악과나무를 마귀가 에덴동산의 한복판에 심는 것을 하나님은 어째서 사전에 막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정해진 룰(규례)에 의해 그것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마귀의 세력이 강하다는 뜻이 됩니다. 빼앗겨도 어쩔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마귀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두 마음을 품은 아담,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내고, 그립(천사)을 시켜 화염검으로 저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전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따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담, 하와는 이미 마귀의 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죽을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달라고 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숨었다.”(창 3:10)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는 찬 공기가 감돌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대신하여 마귀와 싸우도록 하기 위해 지으신 이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당신께 도움을 드리는 그릇이 아니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나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이행했을 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계2:26)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조건이 불리해지는 것을 당연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막강한 적의 도전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는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어 왔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창세 때부터 큰 도전을 받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신 것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당부하신 것은 어둠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 침투한 마귀가 발등상 되기를 오늘날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히10:13) 이처럼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마음대로 척척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것이 지상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람을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일단 빼앗긴 연후에 되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빼앗기기 전에 이미 에덴동산의 한복판에 침투한 마귀는 빼앗은 후에 하나님의 보좌에 참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계12:10)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차단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도전을 차단한 것이 이긴자입니다. 마귀가 이긴자를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긴자 감람나무는 말하자면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령관 격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꺾이면 기독교가 꺾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배를 마귀가 받고, 응답도 마귀가 하게 됩니다. 지상에서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또 난들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시니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것처럼, 감람나무의 역사가 무너지면 솟제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신 것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역사를 주께서 굳이 다시 일으키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성경에 예언된 존재입니다. 이긴자 감람나무가 나타나면 성서는 새로운 차원에서 가려진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무찌르기 위해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천당 가서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을 위해 희생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대가는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이 반석 위에 서지 못합니다.

Chapter 02.

일곱째 천사와 하나님의 비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계10:1-2)

하나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그 깊은 내막에 대해 사람들이 아직 분명히 모르고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여 구원해 주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더욱 깊은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의 회복이 그것입니다. 즉 에덴동산에서 마귀에게 빼앗긴 인간을 되찾아 만유를 회복하는데 독생자의 피권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정이 급박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도전을 쉽사리 물리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힘은 7:6의 비율로, 하나님은 만만치 않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7을 행사하시면 마귀는 6으로 가로막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서 $7 - 6 = 1$ 의 힘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업이 지지부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어 처참하게 피를 흘리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깊은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전쟁보다 더 처절한 것입니다.

지상에서 이 전쟁을 마무리 짓도록 부름을 받은 사령관이 이긴 자입니다. 모두에 인용한 말씀에 나오는 ‘작은 책’은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일곱 인으로 봉한 책’과는 다른 책입니다. 이 작은 책에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학무식한 내가 이 단상에서 새로운 깊은 말씀을 계속해서 터뜨리고 있는 것이 ‘작은 책’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일찍이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듣고 기록하려다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기록하지 않고 인봉해 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계10:4)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와는 관계가 없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춰진 비밀은 이긴자에게 알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계2:17 참조) 이 천사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

다고 하였습니다.(계10:2) 여기서 바다와 땅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계10:7)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전쟁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적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은 일본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작전을 세우고, 여기 종사하는 요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려 극비리에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신(성령)과 신(악령)이 하는 전쟁에 비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곱 우레의 비밀은 마귀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작전 계획으로, 때가 되면 하나하나 신중히 터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곱 우레의 내용에 따라 지상에서 하늘 군대를 기르는 작업이 오늘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군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드온의 300명 군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특공대가 되기 위해 이곳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 특공대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이영수가 예뻐서 두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큰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계14:14-16)
모두에 인용한 말씀은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긴자는 작은 책의 비밀을 가지고 군병을 만들고 이한 낫으로 알곡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Chapter 03.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중의 한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큼니까?” 하고 묻자, 주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대답하신 말씀이 나옵니다.(마22:35-37)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도 있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신명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면 막막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요일4:8)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당연히 들리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의도가 깃들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간과한 것 중의 하나가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입니다. 성경에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창17:1, 35:11, 계1:18)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 밖에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못하신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두드러진 것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에게 피를 흘려 죽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장 6천 년 가까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사례를 일일이 들려면 끝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해 6천 년 가까이나 역사해 오신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에 제동이 걸려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기도 하시고,(창6:6)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도 하셨습니다.(삼상15:11)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수 하신 일을 한탄도 하시고 후회도 하십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척척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無)에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한 조물주

시지만,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세력이 엄연히 있습니다. 이 세력이 삼손의 힘을 앗아갔으며, 이 세력이 주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력을 꺾는 역군으로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사43:7) 즉 하나님께서 그 적대 세력을 무찔러 영광을 받기 위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 즉 아담을 지으신 것입니다. 적대 세력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건전한 인간관과 기독교 윤리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군대요, 따라서 마귀와 싸우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인간의 선과 악이 여기서 구분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선이고, 반대로 마귀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악이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마귀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지 않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거들떠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귀와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인간을 당신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십니다. 이를 위해 모세를 애굽 바로에게 보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로 하여금 음식을 먹이게 하셨고, **(왕상17:6)** 이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수한 매를 맞게 하셨고, 이를 위하여 심지어 당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렇게 가로막힐까 하고 이상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니까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적하는 힘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다. **(삿5:23)**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위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Chapter 04.

하나님은 왜 이긴자를 필요로 하시는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고, 선지자들을 부르고,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이긴자를 세우시는 등, 복잡하고 번거롭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까지 바쳤으면 그만이지, 이긴자는 왜 세우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처리하시면 될 터인데, 그렇게 간단치 않은 까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설명을 들어 대강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그것은 마귀가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신다고 선지자 요엘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신(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신인지, 마귀의 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신이 하나면 그냥 받아도 되는

데, 신이 하나가 아니라 성령과 악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신을 내려보내실 때에 이러저러한 표적을 느끼게 된다고 미리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골 2:28)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 곧 신을 부어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이슬 같은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호14:5) 주께서는 생수의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요7:39) 이것은 다른 보혜사를 가리키며, 이 다른 보혜사는 주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16:7)

두 감람나무를 모세와 엘리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은 이 주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메시아께서 보내 주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 땅에서 역사하는 존재이며, 그 존재를 주님은 ‘나의 두 증인’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계11:3) 그러므로 두 감람나무는 메시아 이전에 등장할 수 없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의 다시 오실 여건을 마련하는 길 예비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 이것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주님도 지상에 육을 입고 계실 때에 모르시는 것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그 날은 주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24:36) 주께서 이긴자 감람나무의 소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신 것은 승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취하신 연후의 일이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계5:8) 만일 주께서 땅에 계실 때에 아셨더라면 미리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감람나무에게 권세를 맡겨 역사하리니, 그를 통해 생수도 받고 이슬도 받게 되리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긴자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기서 종이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거룩해지므로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와 같은 자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배출시키는 존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계21:7)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실제로 그 일을 맡아 할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 존재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나무이므로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은 이긴자를 통하여 부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보혜사는 이슬과 생수로 내리게끔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호14:5, 요7:38-39) 그러므로 다른 식으로 오는 것은 다른 보혜사 성령이 아닙니다. 향취가 나고, 시원하거나 달콤한 느낌 등은

모두가 이 이슬과 생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다른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보혜사는 이슬과 생수로 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슬과 생수만 은혜이고,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린 불과 같은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수가 내리기 전의 은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보내신 것이고, 생수는 주께서 직접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원한 제사를 드린 연고로 보내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속죄하는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오순절 날 다락방에서 내린 불과 같은 성령이 약속하신 생수가 아니고 구약 시대의 은혜라는 것은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스테반처럼 순교를 해야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것으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후 근자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독실한 성도들은 순교를 지상의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가 어린 양의 피로 씻기면 순교할 필요가 없어 집니다. 순교하지 않아도 마귀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피로 어떻게 씻느냐? 이슬과 생수와 같은 다른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씻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옛날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순교하지 않으면 온전히 정결함을 얻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순교입니다.

그러나 이슬과 생수, 즉 다른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받아 이루어져서 기록해지면 순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나도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다.”(요16:13)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보혜사는 주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귀는 여간 불리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피권세를 가진 존재가 자기 세상에 와서 직접 휘젓고 다니니, 이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때 마귀는 주를 상대할 새가 없습니다. 우선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적부터 쳐야 하는 입장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마귀가 하나님께 직접 도전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도전을 ‘참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계12:10 참조)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권함을 받게 되자 마귀는 주님을 상대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2천 년 동안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직접 마귀와 싸워 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번잡한 것을 털어 드리는 자가 이긴자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이긴자가 나타나면 주께서 갖고 있던 권세를 그에게 맡겨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계2:26-27) 그는 빛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두

운 세상에서 그 빛이 계속하여 전달되면 어둠은 물러가고, 마귀의 세력이 꺾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발등상 된다고 말합니다.(사

110:1, 눅20:43, 히10:13)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지상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려보낼 때에는 지상에 이를 받아 역사할 자를 하늘에서 택하게 됩니다. 그에게 그 역사가 무슨 역사이며, 그 성령이 무슨 성령이라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불의 성령처럼 주께서 개개인에게 부어 주시면 받는 사람은 그 귀중성을 잘 알지 못해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아서 움직이는 자를 세워도 꺾이는 판인데, 함부로 내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14년 전에 3층천에 끌려간 사람을 안다.”(고후 12:2-3)고 하여, 자기가 이상 중에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갔다는 말을 못하고,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일찌감치 말해도 믿어 주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년이 지나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간접적으로나마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가만있나요? 마귀는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주님을 팔아넘긴 것은 제 정신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가 미치광이도 아닙니다. 마귀가 그의

두뇌를 돌려놓아 본인은 자기 생각과 행동이 옳은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흠과 티가 없는 아담, 하와도 죽게 만든 것이 마귀입니다. 이것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하늘에서는 감람나무를 내세워, 이슬과 생수로 임하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 본격적인 작업을 하실 것을 책정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역사이므로 감람나무를 둘로 예정했습니다. 만일 하나였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다른 보혜사의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일반교회의 목사나 전도사들이 와서 들으면 머리가 멍하여 뭐가 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니까요.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아 기독교가 형성되어 2천 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내용적으로 구분을 짓고 있으니 납득이 갈 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수십만의 교인을 모아 놓고 외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볼 때 사이비 중의 사이비요, 이단 중의 이단으로 천하에 몹쓸 놈으로 알려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 누가 믿어 주겠습니까? 그나마도 앞선 역사에서 델대로 데고, 지칠 대로 지친 여러분을 놓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린내 나는 고깃배 위에서 사공들 10여 명을 앞에 놓고 설교하신 주님을 상기하고 자위할 수밖에요.

여러분 자신도 신기한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계산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귀가 조금씩 열려 이해도 하다가 의심도 하고, 의

심도 하다가 이해도 하면서 쫓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늘에서 시체가 피어 가는 영을 소중히 여길까요, 썩어 가는 영을 소중히 여길까요? 대답은 들으나마나입니다.

Chapter 05.

인간의 피는 점점 더러워지고 있다



우리의 역사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마귀는 마귀대로 한사코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사가 실제로 발돋움 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복음화 운동에 치중해 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 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하는 운동이 다방면으로 일어났 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감람나무가 나타나 움직이면서부터, 그 것이 인간의 눈에는 한반도의 한 종교 운동에 그친 것으로 보일지 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일대 혁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화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단계

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로 인간이 아무리 많이 번성해도 인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늘어간다면 하나님께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마귀가 침투한 상태에서 인구가 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못마땅한 조건이 계속해서 커 가는 것입니다. 이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불리한 조건이 자꾸만 증대되므로 하나님은 대책을 강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일으키신 혁신이었습니다. 혁신치고는 이 이상 큰 혁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을 다 멸하시고 새 출발을 하기로 시도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나? 너무 무자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긴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홍수로 인간을 싹쓸이하신 후에 방주 속에 있는 노아와 그 한 가족의 후손에게 기대를 걸으셨던 것입니다. 멸했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기대가 뭐냐?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9:1)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

와를 지으시고 하신 것과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과 식물은 먹어도 좋지만, 피는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창9:3-4) 왜 이런 지시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은 죄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만,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이어받은 유전죄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은 죄, 즉 자범죄는 유전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엄청난 유전죄를 아담, 하와가 지은 원죄와 더불어 안찰을 하여 소멸시켜 주는 주의 종의 고마움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속세를 떠나 절에서 도를 닦으면서 살아가는 승려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도를 많이 닦은 고승일수록 죽어서 확장하면 많은 '사리'가 나옵니다. 이 사리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멀리하고 일생을 정결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범죄가 없을지라도 원죄와 유전죄는 없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왜? 사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피권세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를 사함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안찰입니다. 여러분은 내게서 안찰을 받을 때 아프거나, 속이 시원하거나, 울렁거리거나, 메스꺼운 느낌은 받아도 자기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안찰은 생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생수는 주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찰을 받으면 피가 맑아지고 죄가 사해집니다.(눅13:1)

이 경우에 주의 종은 주의 것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따라 주의 것이 많이 오기도 하고 적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주의 종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정결하지 못하는데도 남을 안찰하여 죄를 씻어 정결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종이 정결하지 못하면 안찰이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를 증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야 한다는 말은 누구나 듣기 싫어합니다. 그것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자기를 내세우는 상투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성서와 사실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주를 증거했으나 오늘날 주님을 대행하는 역사에서는 대행하는 자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대행하는 시대에 주님만 증거하면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긴자를 제쳐 놓고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역사에 동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간 이영수를 보고 이곳에 모였습니까? 이영수를 통해 주의 것을 받고자 오신 겁니다. 나는 주께서 지시하여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구분 짓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아담, 하와 때부터 노아 시대를 거쳐 모세 시대까지 유전죄가 점점 많이 쌓이게 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시대에서 주님 시대, 주님 시대에서 오늘날까지 인간의 피는 더욱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혈통 속에 죄가 쌓이고 또 쌓여 가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상대방의 눈에 손을 대는 순간, 주의 은혜가 신경 세포를 통해 온몸에 순식간에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의 원죄와 유전죄는 완전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나머지 자범죄인데, 안찰을 받고 소멸시킨 후에 다시 범죄하면 안찰에 의해 자기 몸에 담겨 있는 주의 보혈을 더럽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원죄와 유전죄가 소멸되지 않는 상태에서 믿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똑같이 믿는 것 같지만, 이진자를 만나고 못 만난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것은 결코 내 이미지를 심기 위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섭리 안에서 계속 정결해지는 것이 오늘의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Chapter 06.

다른 보혜사 성령이란 무엇인가?



지금부터 2천 년 전에 예수께서 지상에 전하신 복음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이 대단히 귀중한 가르침이지만, 깊은 말씀은 하시지 못하고 진리의 성령, 곧 보혜사 성령에게 미루었습니다.(요16:12) 당시에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이나 이해력으로는 감당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줄곧 예수께서 지상에서 하신 복음의 말씀에 치중해 왔으므로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대목이 많은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여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깊은 경륜이 적힌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떼어 보시고 비로소 자세한 내막을 아셨습니다.(히6:20, 계5:7) 주님은 밧모 섬에 귀양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계시로 보여 주시고, 당시의 여러 교회에 널리 전하게 하셨던 것

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입니다.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 “나를 믿는 자는 성령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요7:38)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요7:39)는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수의 성령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영광을 받으신 후, 그러니까 승천하신 후에 내리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과 문도들은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순절 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불과 같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행 2:3) 이들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는 하루에 3천 명을 전도하는 큰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이적과 기사도 행하고, 심지어 신도들끼리 네 것 내 것 없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한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저들이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 얼마나 감격하여 주께 감사하였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저들은 주님께서 일찍이 지상에 계실 때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과연 저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생수가 배에서 강같이 흘러넘치는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

신 것이지, 불과 같은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불과 같은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출3:2-3) 이것은 호렙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내린 불과 같은 성령은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내릴 수 있는 성령이었습니다. 오순절에 내린 불과 같은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요16:8)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생수의 성령인데, 실제로는 불의 성령을 내렸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근 2천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치리하시면서 이들이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순교하여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하늘 군병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순교했으며, 스테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도 주님은 성령을 보내어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행7:55) 이때 주께서 주신 성령은 물론 불과 같은 성령이었습니다. 순교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를 위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목숨을 던지는 것을 말하며, 믿는 자들 10만 명에 한 사람 날까 말까한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죽은 후에 음부에서 기다려야 합니다.(계20:5 참조)

이렇듯 불리한 조건으로 이끌어 오신 것이 주의 역사였습니다.

만일 주께서 오순절에 생수의 성령을 보내 주셨더라면 하늘 군병 14만 4천의 수는 진작 충족되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도 남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성령이 내리면 순교하지 않고도 뿔기세택의 반열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요컨대 이 생수의 성령을 보내어 순교하지 않고 뿔기세택의 반열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 놓아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어찌하여 주님은 약속대로 생수의 성령을 보내 주시지 않고, 구약 시대의 불과 같은 성령을 보내어 번거롭게 순교자를 배출 시켜야 했을까요? 생수의 성령을 내리려면 한 가지 조건이 따라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긴자의 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와 영음으로 이를 자세히 알렸고, **(계2:7-3:22)** “내가 생명수 샘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계21:6-7)**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이긴자의 출현을 하늘에서 장장 2천 년 가까이 기다리신 끝에, 지금부터 35년 전, 그러니까 1955년에 이긴자 감람나무가 나타나 처음으로 집회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선 역사에서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가 9만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처음 받은 은혜로, 받은 자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요14:17)** 그것은 2천 년 동안 베일에 싸였던 비밀이었으니,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주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이것은 어느 교단에 국한하여 하는 말이 아니

라, 성서의 기본 원리를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긴자가 나타나면 주님은 그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전보다 하늘의 여건이 상당히 유리해지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휘방하던 마귀의 세력이 이긴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비유해 말하면 방어선이 주님으로부터 이긴자에게로 옮겨간 셈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이만저만한 타격이 아닙니다. 그 무너진 방어선을 다시 세우라는 것이 주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생수의 귀중성은, 이 역사에 동참했던 성도가 죽었을 때 생수로 그 시체가 순교한 사람처럼 아름답게 변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교하지 않고도 순교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며, 그것이 이긴자를 통하여 실제로 내렸고, 또 지금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역사와 이긴자에 대해 아직 깊이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호14:5-7)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슬의 언약과 주님의 생수의 언약이 이긴자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마귀가 이긴자를 꺾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으로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이긴자를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경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Chapter 07.

보혜사 성령과 이긴자 (1)



성서에서 창세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계시록은 오메가입니다. 즉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에서 계시록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오순절 날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행2:4)** 남에게도 성령을 받게 해 준 사람입니다. **(행8:17)**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계21:6-7)** 만일 당시에 믿는 자들이 생수의 은혜를 받고 있었다면, 즉 다른 보혜사 성령이 내리고 있었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말씀으로도 당시에 아직 보혜사 성령이 내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7:38-39 참조)**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로 2천 년 동안 기독교는 오순절 날에 내린 불의 성령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주께서 눈이 없어 이것을 방관하셨겠습니까? 손을 쓸 수 없어서 무수한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여 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순교해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 산 제물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그를 열심히 따르는 성도들이 다시 피를 흘려 산 제사를 드려 순교해야만 했다면, 주께서 피를 흘린 보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순교자를 배출시키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일이 간섭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긴자에게 이 순교자와 같은 자격자들을 쉽게 만들어 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긴자가 하는 일입니다.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만들어 낸다는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긴자가 나와야 생명수 샘물을 줄 수 있다고 분명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계21:6-7) 이긴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세계적으로 계속 순교자를 배출시켜야 합니다. 주님은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그밖에 세계 방방곡곡에서 잘 믿는 사람을 내려다 보시고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 견디며 당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줄곧 도와주셔야 합니다.(행7:56 참조) 그렇게 해서 순

교자가 한 사람 배출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하시고, 또 한 사람 배출되면 녹명하시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인도 사람이 됐든, 미국 사람이 됐든, 한국 사람이 됐든, 녹명하고 또 녹명하면서 주님은 계속 순교자를 배출시키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긴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한국 땅에서 이긴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토록 주고 싶어 했던 다른 보혜사 성령을 파격적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이긴자를 통해 주의 피가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 생수를 보고 “피다, 피대!” 하고 도망쳤던 겁니다. 영적인 것은 미친 사람이 더 잘 압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미친 사람이 먼저 알아내었습니다.(마8:29 참조) 성한 사람은 오히려 눈이 세상 것으로 가려져 영적으로는 어둡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2천 년 가까이 지나서야 보혜사 성령이 이슬, 혹은 생수 같은 형태로 오신 겁니다. “너희 속에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요7:38)는 말씀이 응해진 겁니다. 그것은 주의 피로 된 겁니다. 그 피가 담긴 물을 바르니 썩은 송장이 산 사람처럼 화사하게 변했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의 위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감람나무의 그늘 아래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구름 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이 앞선 역사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 최초로 일어난 다른 보혜사의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오순절에 내린 불과 같은 성령의 운동은 2천 년 동안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으나,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 처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의 피를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주의 피를 모독한 자가 됩니다. 이 점을 주님은 18년 전에 비통한 심정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은 것이 주의 설명을 듣지 않고 어떻게 성령을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기라성 같은 대신학자들에 의해 2천 년 동안 굳어버린 고정 관념을 제가 어떻게 뒤집을 엄두나마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할례를 폐지시켰던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앞선 감람나무의 역사는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 의 섭리를 변개하여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여지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것을 다시 세우라고 하시기에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역사의 시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그것이 어찌 인간의 것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복귀시키는 나중 역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나처럼 존재 없고, 초라하고 힘들게 일하는 종도 없을 것입니다. 남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것, 영적인 것을 조금만 알아도 신령하다 하여 수만 명이 모여들고, 병이나 좀 고치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됩니다. 오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는 축복한 물로 썩은 송

장이 산 사람처럼 변하고 죽을병에 든 사람이 생수를 마시고 나아도 내색 한번 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내막이 부분적으로 밝혀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터뜨리지 않으신 것을 적나라하게 쏟아 놓아도 들으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24시간 0.1초도 성령이 끊이지 않고 같이 하는 것이 이긴자입니다. 그런 존재가 나타났는데도 알아주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100원 짜리, 200원 짜리 빵에 축복하면 그걸 먹는 사람에게 은혜가 가는 데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한평생 새벽 제단을 쌓아도 소멸될까 말까한 죄를 단 3초 만에 소멸시켜 줘도 그 값어치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욕이란 욕은 바가지로 먹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존재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긴자의 역사입니다. 표가 안 납니다. 위력을 인정치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재료가 하늘에서 계속 오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내는 역사입니다. 그리하여 ‘어린양의 생명책’에 녹명될 자가 날로 늘어갑니다. 이들은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이므로 영의 세계에서 어떤 고통이 와도 ‘짐승’에게 결코 절하지 않습니다.(계20:4 참조)

수십억이 예수를 믿으면 뭐합니까? 마귀에게 정복당하면 주님에게 득 될 게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도망치는 자는 있

으나마나 합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이득이 없으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대에 어긋나면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지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원수를 무찌르기 위해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이긴자는 하늘에서 주시는 재료(성령)를 가지고 이런 하늘 군병을 만들어 가는 자입니다. 말씀만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특히 두 번째 감람나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낮을 든 자라고 한 겁니다.(계14:14 참조) 어디서 만드느냐, 성전에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계14:16 참조) 그래서 성전을 따로 지으라는 지시가 온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당신을 믿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이라면 이긴자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아담, 하와부터 뿌리를 캐는 겁니다. 아담, 하와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호와께서 필요하여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빼앗겼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빼앗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만유를 회복해야 합니다.(행3:21) 그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 지상에 이긴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만드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종이 없었으며, 따라서 그런 역사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믿어라. 따라라. 순종해라.’는 있었지만, ‘만들어 내라.’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격

을 가진 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들어 내라.’는 것은 우리 역사가 처음입니다. 앞선 감람나무의 역사도 만들어 내는 사명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뿌리는 역사였지, 거두는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만드느냐가 문제입니다. 주님은,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요14:16)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살아 있으나 죽으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에만 함께 하고, 죽으면 마귀가 데려간다면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다른 보혜사가 오기 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었다면 다른 보혜사가 와야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말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 다른 보혜사가 없으면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만들어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이 이걸 한사코 파괴합니다. 그래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만드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여 만드는 겁니다. 무엇을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부릴 수 있는 하늘 군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성교회에서 믿는 것과 다른 겁니다.

긴 세월이 흘러왔으나 어디에서나 기독교를 믿는 방법은 같습니다. 즉 믿으면 영생한다는 차원에서 믿어온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도 세우고, 병원

도 세우고, 양로원도 세웠습니다. 불우 이웃 돕기도 발 벗고 나섰습니다. 그럼 기독교의 목표가 그거냐? 아닙니다. 그럼 귀신을 내 쫓고, 병 고쳐 주는 거냐? 아닙니다. 주님은 70문도들에게 이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그 권능을 행하고 기뻐할 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눅10:20)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기독교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알곡의 수를 실제로 배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만유를 회복하는 길이 열려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Chapter 08.

보혜사 성령과 이긴자 (2)



다른 보혜사를 증거하는 어려움은 바울이 할례를 증거하는 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내린 불의 성령이 장장 2천 년 동안 기독교를 이끌어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역사를 시작하면서 오순절에 내린 불과 같은 성령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는 말을 한동안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깊은 말씀을 던지면 여러분이 소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에게는 젖을 주고, 장성해야 밥을 먹일 수 있습니다. 영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체계가 서기 전에 깊은 말씀을 터뜨리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장성했기 때문에 말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열심을 다해도, 다른 데서는 보혜사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오순절에 내린 불의 성령을 보혜사 성령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받아서 실제로 체험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요14:17)

오순절에 내린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얼굴이 불그레해지고,(행2:13 참조)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스테반은 돌팔매를 맞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과 같은 성령의 힘입니다. 이 성령을 힘입지 않았더라면, 스테반은 돌에 맞아 “아아아!” 하고 외마디 신음 소리를 지르면서 죽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16:12-14)

여러분은 저를 통해 이 보혜사 성령의 가르침을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지상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 제자들의 말에 따라 지금까지 믿어 왔습니다. 다른 말을 하면 곧 이단으로 찍혀 버립니다. 주께서 지상에서 하신 말씀이나 제자들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의 심령이 어려서, 주님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가 오면 주의 것을 가지고 장래 일

을 가르친다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영이 오면 주님 당시에 제자들이 감당치 못했던 깊은 말씀을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참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이 이긴자의 입을 통하여 주님 대신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기독교 신자들은 유감스럽게도 다른 보혜사 성령이 하시고 싶었던 주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주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과 제자들이 한 말의 차원에서 믿다가 죽고, 또 그 차원에서 순교자들을 배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했습니까? 그러나 그네들도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기는커녕 알지도 못했고, 들어 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보혜사 성령에 대해 설명을 들어 알고, 실제로 받아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보혜사 성령의 귀중성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습니까? 안찰을 자주 받으면서도, 생수를 만날 마시면서도 그 귀중성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이슬이 내려도 그런가 보다, 찬송을 부를 때 생수가 가슴속에 시원하게 넘쳐나도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은혜에 만성이 된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여러분에게 생수를 전과 같이 입김으로

직접 만들어 줄 수 없어, 그 안타까움을 주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오후 일곱 시 반에 생수 축복을 해 줄 테니 신도들의 집에 물을 떠놓게 하라.”고 지시하시기에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하여 생수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주의 진액을 부어 생수가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짜~’ 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수로 죽은 우리 식구의 시체가 아름답게 변화된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분명히 보아 알지 않습니까? “네가 만들어라. 재료는 내가 주마.”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앙으로, 죽은 후 자기 시체가 산 사람처럼 아름답게 변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역사를 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직 멀었습니다. 자부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영의 문제이고, 세상에 몸담고 있는 것은 육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상처투성입니다. 아직 체계가 서지 않은 사람은 믿으면서 만족스러울 때가 있는가 하면, 불만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의심도 생기고, 원망과 불평도 일어날 것입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것 아닌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 모릅니다. 처음에 이 역사에 받을 들여놓았을 때 의심하고, 시험하고, 계산하고, 이유가 많고, 여러분은 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흥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설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창세 이후 처음

터뜨리는 말인데,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내 설교를 들어 오지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그 긴 세월을 계속해서 영의 세계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신이 아닙니다. 주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까지 주께서 하라하시니 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도와주시니 일이 되어 가는 겁니다. 왜 주께서 도와주시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에 이르렀을 때 바다가 갈라진 것은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셔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는 종이 자기가 위대해서 되는 줄 안다면 큰 착각입니다. 역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 벌써 망조가 드는 겁니다.

주님은 왜 무너진 앞선 역사를 다시 세우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감람나무의 ‘감’ 소리만 해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시, 삼단시하기에 꼭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주께서 하라 하시는데, 별 수 있습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뜻을 따라 섭리 안에서 복구하자니 힘든 겁니다. 그만큼 적의 저항이 강한 것입니다.

10만, 20만이 모이면 뭘 합니까? 뭔가 이루어진 게 있어야죠. 목

사 장로도 죽으면 푹푹 썩어 가서 마스크하고 송장 치러야 합니다. 감람나무 가지의 시체가 아름답게 변하는 건 무슨 조화입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의 조화입니다. 물 떠놓고 내가 축복하면 그 물이 생수로 변해 버립니다. 거기 주의 보혈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계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재료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던들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마귀는 예수를 죽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거꾸로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Chapter 09.

보혜사 성령과 이긴자 (3)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 메시아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메시아가 자기 민족 가운데 나타날 것을 자랑과 긍지로 삼아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메시아가 나타났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알기 무척 어려웠던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알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수많은 신도들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은혜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

으로 잘못 알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그동안 여러 달에 걸쳐서 이것을 지적하고 성경 구절을 들어 가면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근 2천 년 동안 이 지구상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은 결코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납득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랫동안 내 설교를 들어 온 여러분이 그럴진대, 일반교회의 신도들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특히 신학자나 목회자들의 귀에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것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더라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반기는커녕 들어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보혜사 성령은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부터가 깊이 알고 보면 자기 뜻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위에서 이 역사에 동참했든 간에,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이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영의 세계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음을 받은 우리는 엄청난 섭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한계 안에서 헤아릴 수밖에 없습니

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조차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너나없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취임식을 할 때에는 성경에 손을 얹고 엄숙히 선서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서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일반 기독교 신자들이나 목회자들도 내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요16:7) 여기 떠난다는 말씀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에 불과 같은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분명히 지적한 대로 생수의 성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잘 믿는 신도들은 순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면 “너희에게 유익하다.”(요16:7)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똑같이 죽임을 당하고, 똑같이 매 맞고, 똑같이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뭐가 유익합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면 유익하게 된다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익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아야 유익이고, 매를 맞아야 하는데 맞지 않아야 유익이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노력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야 유익인 겁니다.

여러분들, 내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께서 내 입을 통해 하

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전하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였습니다.(요16:8) 그걸 조금이나마 실제로 행한 종이 앞선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정죄하고, 사죄(赦罪)하고, 안찰하여 성령을 부어 주는 등, 큰 권능을 갖고 실제로 움직였던 겁니다.

혼자 기도하고 은혜 받아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손길을 통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도깨비라고 자르면 바로 멸망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혹시 딴 데 가서 이상한 신을 받은 사람이 안찰을 받으면 얼굴에 흑이 튀어나오고, 자빠져 입에 거품을 물고 아파서 찢찢맸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배규정 장로님이나 신화봉 집사님 같은 분도 눈으로 보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진리의 성령, 즉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주의 것을 가지고 대신 역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란 보혜사 성령입니다. 주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면 주님이 이 땅에서 약속하신 일을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는 존재가 하게 됩니다.

오순절 날 보혜사 성령이 임했다면 주께서 뭐가 안타까워, 은혜 받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충성하는 신도들이 주축이 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여러 교회에 이긴자가 나와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셨겠습니까?(계2:7 등) 당시에 약속하신 생수의 성령이 온 겁니까? 이긴자가 나타나야 생수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긴자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계21:6-7)
생수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겁니다.(요7:39 참조)

그러다 드디어 한국에서 이긴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국면이 확 달라졌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께서 직접 역사하셨는데, 보혜사 성령이 나타난 후에는 보혜사 성령이 주님을 대신하여 역사하게 됩니다. 그게 언약이기 때문입니다.(요14:26, 16:13-14) 만일 보혜사 성령은 보혜사 성령대로 역사하시고 주님은 주님대로 움직이신다면 언약에 부합되는 겁니까?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이 보혜사의 역사를 맡아 주관한 존재가 바로 앞선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보혜사 성령이 움직이는 곳에 은혜를 집중적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무너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과 지상의 은혜 연결이 차단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나도 주께 듣고 배워서 알게 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지 않고 기름부음이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요14:26) 만일 나더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단상에서 설교하라면 나는 병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배운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 밑천이 없습니다. 위에서 가르쳐 주시니까 외치는 겁니다.

이전에는 순교해야 하늘나라에 필요한 역군이 되던 것이 그 보혜사가 역사하면 순교하지 않아도 무더기로 그 역군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시대에 빨리 그 역군을 대량 생산 하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너졌으니, 이때의 주의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게 박 아무개 거냐! 내 피를 짓밟았다.” 주님의 노하심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앞선 감람나무 역사가 패망하니 모두들 우습게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역사 자체는 붕괴되고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역사가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너를 통해서 내 것이 나간다. 너를 만나는 자는 나를 만나는 자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은 생수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요 7:39, 계21:6-7) 그러나 오순절에는 불로 왔습니다. 그들은 생수라는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 물 붓듯 부어 준다고 증거했습니다.(행2:18) 불로 받고 물(생수)을 증거한 겁니다. 맞지 않은 말입니다. 오늘날 누가 이걸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쪼개어 전하는 데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시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제 입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우리 역사를 대단히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시시때때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시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나는 중간에서 실제로 심부름을 하는 위치에서 18년 동안 그것을 몸으로 겪어왔습니다. 참으로 신비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이영수의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분을 볼 때 내 밑에 왔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참으로 복이 많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이 은혜 안에 불러 주셨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왕성합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얼마나 훌륭한 교역자들이 많습니까? 공부 많이 하고, 고된 수양을 쌓은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게 이런 역사를 한다고 생각할 때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내 신으로 된다.”(슥4:6)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Chapter 10.

십자가는 말한다



1) 십자가와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마귀의 역사를 멸하고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여 십자가에 달려 흘린 피권세로 인간의 더러운 죄를 씻는다는 것부터가 인간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믿으니까 그렇지,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신이 영적인 높은 차원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거나 씻어 주신다면 이해가 한결 빠르겠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게 해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어렵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뭔가, 신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하실 필요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 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씻음 받는대’, ‘구속 얻는대’ 하고 막연히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땅에 계실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나의 살이요, 포도주는 내 피니라.”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하여 교회마다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은총을 입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것은 꿈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야 인간들에게 구원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민의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데 대해, 믿는 사람 중에 아무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고 묻는다면 아무도 선뜻 대답을 못 합니다. 그 내막을 아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가, 아무 교회 목사님에게나 가서 물어보십시오. 무슨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시키는 과정이 그렇게 끔찍스럽고 복잡한가, 꼭 독생자를 그토록 처참하게 피를 흘리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야 하는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정확히 모르면 기독교를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

는 주님이 중심인데, 그 중심이 되신 분이 피를 흘려야만 구속을 시키는 이유를 알아야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싸웁니까? 마귀와 싸웁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인간을 짓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동산의 여러 가지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는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게 된다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의를 주셨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에게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밖에 내보낼 때 염려할 것이 전혀 없으면 조심하라는 주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태로운 일이 도사리고 있으면 걱정이 되어 조심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단속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못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만 있다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아무 걱정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마귀라는 강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하고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하고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의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신 것은 이처럼 해칠 상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셔야 인간을 죄에서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피를 흘

리지 않으시면 인간을 죄에서 구속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만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않았던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롬9:29)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요6:51)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요6:53)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요6:55)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양식과 음료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의 살과 주의 피가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요6:48-50)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더라도,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도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은 하나님의 적을 무찌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흘리신 피가 인간에게 어떤 작용을 하여 구속이 이루어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전에 하나님은 세 단계의 전쟁을 거쳐서 마귀를 완전히 무찌르게 되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적이 수류탄을 갖고 있다면 이쪽에서는 수류탄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땅에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무기로,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54억 인구가 다 합세해도 줄개 마귀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마귀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면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전에 여러분이 싸우는 상대는 음녀라고 말했습니다. 음녀 다음에 나타나는 마귀는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병은 음녀도 이기고, 짐승도 이겨야 합니다.

계시록에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계13:18) 이 말씀에 대해 신학자들이 갖은 소리를 다 하지만, 백 번 떠들어도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유를 회복하시려는(행3:21)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마귀라는 적을 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적을 멸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이며, 오늘날 나 같은 사람을 이긴 자로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구원받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계 15:2-3) 짐승은 음녀보다 더 강한 마귀입니다. 이 짐승을 이겨야 마

귀를 완전히 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고전 14:30)고 말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는 계시록 이전의 말씀은 계시록에 흡수되어야 합니다. 계시록은 주님의 특별 지시로 쓰인 성서이며, 최고의 말씀인 동시에 최후의 말씀입니다.

2) 마귀를 이기는 원리

계시록에 보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계20:4)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교회에서는 ‘짐승’이 뭔지도 모르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도 될까 말까 한데, 모르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요3:16)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제기

되는 문제는 마귀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섭리와 은혜 안에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못 이기는 차원에서 참된 구속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눈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많은 물위에 앉은 큰 음녀(계17:1)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와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좋으니 한 주일쯤 만 데 가서 무릎을 꿇고 철야하면서 열심히 금식 기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도 아니라면 누가 주는 겁니까?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쁜 짓은커녕 나쁜 생각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씌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이처럼 씌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구원받을 겁니까?

주의 종은 이 모든 내막을 18년 전에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나, 때가 되기 전에는 밝히지 말라고 하셔서 이제야 조심스럽게 조금씩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내막을 모르면 그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좀처럼 납득이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마귀에게 속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령 사업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것보다 더 비참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런 초비상 수단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기독교에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타당한 것으로만 알고, ‘영광의 십자가’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시켜 보배로운 피를 흘려야 마귀의 손에서 사람들을 구속하는 형편이라면, 하나님이 유리한 겁니까? 엄청나게 불리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희생시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야 한다면 이건 최후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예사로 들어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수난은 결코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아브라함 때부터 오랜 작업을 하시는 가운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오리라고 예언한 메시아가 나타나자 자기 앞잡이를 시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승리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야 감쪽같이 속은 걸 알고 ‘아이고!’ 하고 원통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이 알았던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전 2:8)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라 그냥은 영의 문제를 알 수 없습니다. 주

님이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깊은 내막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오늘날까지 일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보고 왈가왈부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계시록에 이긴자가 나타나면 이러저러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계2:7 등) 그러므로 누가 이긴자가 되었든, 그가 나타나게 되면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 언약 속에서 못 생명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이 우리가 마귀에게서 벗어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갈림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이 잘 믿고 똑똑해서 생명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그런 때를 만났고 그런 장소에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이 백 가지로 나를 매장시켜도 오늘날까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한결같이 나가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아니라 탄 사람이라도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구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

가 있어야 하며, 그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무기로 마귀를 물리치고 구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권총이면 권총, 수류탄이면 수류탄을 받아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겨서 구속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주님이 직접 인간을 구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김 서방도 잘 믿고, 박 서방도 잘 믿으니 내가 구속을 시켜야지. 너 이리 오너라.’ 해서 직접 구속시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재료(무기)가 지상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가 붙게 됩니다. 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요6:56)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다고 죄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이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선 역사의 주인공은 그 손길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못 사람에게 부어 주어 인기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가리켜 ‘피의 증거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령의 은총은 우리 역사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앞에서 시행한 이야기가 되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요컨대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힘이 있어서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무기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무기를 받은 성도의 시체는 피어가고, 받지 못한 성도의 시

체가 썩어 가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이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신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가거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믿어 직접 구속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에덴성회에 가기만 하면 으레 “왜 하필이면 거기 가나?” 하고 말합니다. ‘하필이면’ 여기 와야 합니다!

주의 종이 감람나무와 이긴자를 성서적으로, 그리고 원리적으로 증거하는 한, 우리 역사가 아무리 크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이단이다, 사이비다 하는 소리는 평생토록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14:16-17) 보혜사 성령의 은총은 이 말씀 그대로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놀라운 앞선 역사가 완전히 매장된 다음에 그 뒤를 이어 다시 세워야 하는 역사는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든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하고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끌어 가는 나를 탓해서 안 됩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도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기분대로라면 왕창 끝내고 싶은 때도 없지 않습

니다. 그러나 그렇게 왕창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눅20:43, 계6:11 참조) 그래야 주께서 오셔서 뒤집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낮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계14:16-19) 여기서 말하는 포도송이는 ‘알곡’과 반대되는 ‘쭉정이’를 가리킵니다. 지상에서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적한 곳에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모든 부속건물을 짓게 하여 당신에게 산 제사를 드리게 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아무 데나 방치해도 알곡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작업을 하시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당면한 어려운 내막을 전달받았을 때 여간 낙심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것은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여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마귀의 손에서 인간을 빼앗으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갑니까? 덮어놓고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며 공경한다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 그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

이 하나님을 참으로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 봐야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의 종이 뭐가 답답해서 이렇게 진땀을 흘려가면서 여러분에게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듣기 좋은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정말 이런 설교는 하기 힘듭니다. 듣는 여러분도 꼴끄럽지만, 말하는 나도 대단히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걸 해야 하는 것이 저의 소임입니다. 저는 그 때문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걸 안 하면 제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 그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역사에 부름을 받아도 구경꾼으로 걸돌게 됩니다. 하루하루 진실하게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Part 02.

감람나무 그늘에서



11. 선악과에 대하여 · 12. 하나님의 역사와 이긴자 · 13.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 14. 주님은 왜 알곡성전을 지으라고 지시하셨는가? · 15. 세마포에 대하여 · 16. 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가? · 17. 음부의 열쇠에 대하여 · 18. 영적 전쟁에 대비하라(1) · 19. 영적 전쟁에 대비하라(2) · 20. 주님은 어찌하여 '갈'이신가?

Chapter 11.

선악과에 대하여



1) 선악과는 누가 지었나?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큰 결함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마귀의 존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계12:10)** 이것은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14:12-14, 유1:6 참조)**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다면, 그렇게 되게 한 세력이 이미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지원 세력이 없이 한 천사가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을 모두 이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적대 세력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력을 꺾을 조력자로서 여섯째 날에 아담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므로 **(창1:26)** 범죄하기 전의 그는 우리와는 달리 신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

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창1:31)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동산의 각종 나무의 과실은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아담, 하와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먹으면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엄하신 경고에도 불구하고 뱀의 꾀에 빠져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었으며, 그러자 그들의 신령한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창3:17-19) 참으로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빛의 세계가 어둠의 세계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마귀가 세상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 이별과 눈물과 죽음을 면치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내어 쫓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천사)들을 시켜 지키게 하셨습니다.(창3:24)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하여 마귀와 싸우라고 지은 인간이 마귀에게 꺾였으니, 차라리 인간을 짓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창6:7)

뱀이 하와를 꾀 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창3:5)고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자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을 알지 못했는데, 어둠의 세력이 선악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선악이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선만 있는 곳에는 악이 있을 수 없고, 악만 있는 곳에는 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담,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는 선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마귀가 개입하여 선악이 구분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선이면 마귀에게는 악이 되고, 하나님에게 악이면 마귀에게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는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죄’는 어둠의 세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유리한 일은 ‘의’가 되고, 하나님께 불리한 일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피가 더러워집니다. 그 피를 맑히는 것이 주의 종의 손길을 통한 안찰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기 전과 후의 아담, 하와 사이에는 천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인간은 모습이 거의 비슷하지만 영의 세계에서 인간의 모습은 각각 성령을 받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하여 각자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에 재미있어 지루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뱀의 꾀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신신 당부하신 선악과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선악과를 지으셨다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좋게 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으신 것을 보시

고 '심히 좋아하셨더라.'(창1:31)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먹으면 죽는 과실나무를 지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저주 아래 두게 된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해답은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즉 선악과는 하나님의 역사를 훼방하기 위해 마귀가 지은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저주 아래 놓인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 오신 분이 주님입니다. 즉 마귀가 지배하는 인류(눅4:6 참조)를 마귀의 손에서 도로 빼앗기 위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정이 절박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제 2 창조의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마귀에게 꺾인 인간이 마귀를 꺾을 수 있는 인간으로 재창조되는 성업이 주후 장장 2천 년 가까이 계속되었으며, 오늘날 이긴자가 주의 피권세로 그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아담의 유한성

나는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마귀에게 도전하는 역군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조인 아담, 하와는 마귀에게 도전하기는커녕 마귀의 밥이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인류에게 어둠, 즉 마귀의 세력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인지가 어느 정도 발달된 약 6천 년 전부터 마귀

에게 빼앗긴 인간을 되찾기 위해 인간과 교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서의 첫머리에 나오는 창세기는 아직 무지한 인간들에게 알기 쉽게 창조론을 전개한 것으로, 그 기본적인 의미는 요지부동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1:27-28) 여기서 우리는 ‘생육’과 ‘번성’이라는 말씀에 대해 유의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생육과 번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육(生育)은 낳아서 키운다는 뜻입니다. 번성은 자손이 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즉 번성하고 생육하는 차원은 작은 것이 커지고, 커진 것이 나중에는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자란다는 것은 늙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늙는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食物)이 되리라.”(창1:29) 이 말씀에 나오는 ‘씨’는 요컨대 유한성을 전제로 합니다. 무한이면 씨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한한 것을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2:16-17)

그런데 아담, 하와는 뱀의 꾀에 넘어가 이 하나님의 당부를 어기고 이 과일을 먹었으나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만일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생육하고 번식한 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마귀의 편이 된다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는 판이했습니다. 성서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창3:8)고 했습니다. 왜 아담, 하와는 숨었을까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반가운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쟁이가 찾아오면 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갑지 않고 귀찮기 때문입니다. 아담, 하와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하여 전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는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한눈을 팔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만을 위하다가 한눈을 팔게 되면 이미 바람기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담, 하와가 그 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눈이 밝아 한눈을 팔고 두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시가 제대로 먹혀들 리가 없습

니다. 이미 마귀의 편이 된 것입니다.

이 원죄는 대대로 인간에게 유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마귀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마귀의 편에 선 인간을 하나님의 편으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요, 또한 기독교의 기본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에 살게 하시지 않고 동산에 따로 살게 하셨을까요? 천국은 유한한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충만할 수 없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 태어난 인간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눅20:35-36)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세계는 너무나 호화롭고 찬란하여 지상에서의 행복은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죄를 짓기 전의 아담, 하와는 생명과일이라는 신령한 양식이 있어도 결코 영생 불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 하와는 신령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변화하며, 따라서 유한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

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지 않으나 아담은 잠을 잡니다.(창2:21) ‘하나님의 자녀’는 알파요 오메가인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과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재창조된 존재입니다.

Chapter 12.

하나님의 역사와 이긴자



1) 회복의 역사

오늘도 이 먼 곳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바쁜 세상에,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이웃 교회들을 외면하고 이 산속까지 불원천리하고 찾아와야 하는가, 하고 때로는 짜증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맘대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어떡합니까? 나는 이 청평 골짜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전을 지으라고 지시하시니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성전이나 부속 건물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대로 지었습니다. 대지부터가 군사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었으나 용케 풀리게 되고, 사람도 돈도 턱없이 부족했으나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이만큼 이

루어졌습니다. 누가 나더러 도깨비 방망이를 가졌느냐고 묻습니다. 무(無)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곳을 성전 터로 지시하시면서, 산세가 이곳과 비슷한 원주의 천주교회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할 당시에 내가 여러분에게 성전의 환경을 원주 천주교회처럼 꾸민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당시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사흘 전에 우연히 천주교에 관한 책을 보고, 원주 천주교회는 대원군 시절에 수많은 순교자를 낸 성지(聖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하늘 군병을 배출하는 점에서 상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성지이고, 후자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의 성지인 것입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따라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담, 하와의 범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로 말미암아 빼앗긴 인류를 되찾으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보내고,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고, 사도를 택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감람나무를 등장시키신 이 모든 움직임이 아담, 하와의 범죄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긴자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를 위해 예수님 및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미리 예언된 성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그때그때 적당히 택함을 받은 여느 선지자나 사도와

비교하여 이 점이 다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3:21)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말씀은 물론 이긴자가 주와 함께 한 보좌에 앉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주의 권세를 이긴자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이긴자에게 지시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하신다는 뜻이며, 이긴자가 주의 보좌에 앉는다고 해서 주와 같게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긴자를 가리켜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계21:7)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아들’도 권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움직이고, 이긴자는 주님을 대신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긴자에게 아들의 대우를 하시며, 따라서 일반 종과는 판이합니다. 이것은 성서적인 사실입니다. 종은 그때그때 택하지만 감람나무는 미리 예정하시고 그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를 모시고 선(슥4:14) 감람나무는 문자 그대로 기독교회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긴자 감람나무가 패하게 되면 기독교가 패하는 것입니다. 이긴자가 어둠에 삼키우면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어둠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날 이것을 눈으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수억을 헤아리고 한 집회에 100만이 모이면 무엇 합니까? 은혜 줄은 이미 끊겨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은혜(?)가 있다

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주의 것이 아닙니다. 왜? 지배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가 지혜가 있어 헤아리겠습니까? 저도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하와를 꺾은 세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짓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 악의 세력을 흔히 천사가 타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14:12-13, 유1:6)** 전에도 말했지만 천사가 타락하였다면 타락하게 한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력이 용이요,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의 세력을 꺾기 위해 아담, 하와를 지으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마귀에게 꺾이면 하나님의 조건이 여간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아담, 하와를 짓지 않은 것만도 못하게 됩니다. **(창6:7 참조)**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 인류는 어둠의 세력권에서 오늘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이긴자 감람나무는 빛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앞선 감람나무의 역사는 그 빛이 어둠에 먹혀 버린 것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담, 하와를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처럼 불리해지면 순제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만도 못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9만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어둠에 먹히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생수의 성령을 받은 성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감람나무가 나타나 생수의 성령이 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계획입니다.

2) 보혜사 성령의 역할

성경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으니”(계2:17) 라고 하였습니다. 이 ‘새 이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의 뜻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단상에서 쏟아져 나와 설교 집이 계속 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3차에 걸쳐서 마귀를 소탕하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1차 싸움에서 마귀는 주로 우상으로 대적하고, 2차 싸움에서는 음녀로, 3차 싸움에서는 짐승으로 대적입니다. 2차 싸움을 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음녀가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차의 싸움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 싸움에서 짐승을 꺾고 이어서 용을 꺾어야 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보혜사는 요컨대 하늘 군병을 십사리 배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생수의 성령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고, 목 베임을 당해 순교

하는 등, 주를 위해 비참하게 목숨을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세마포를 입는(계19:8)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세마포를 입는 방법이 구약 시대와 동일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귀한 피를 흘리신 보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예수님은 오순절 날,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7:39) 여기서 말씀하신 ‘성령’은 보혜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즉 생수의 성령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이긴자에게 유업으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계21:7) 다시 말해서 이긴자가 나와야 그를 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보혜사 성령을 처음으로 충만히 받아 움직인 존재가 앞선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영수 밑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역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이것을 까맣게 모르고 오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앞선 종도 생수의 축복을 내렸으나 그 내막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나도 이 직분을 맡고 나서 가르침을 받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2천 년 동안 전 기독교도들이 받지 못한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하지 않고도 세마포를 입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조건이 그만큼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마귀의 조건은 그

만큼 불리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순교하지 않고도 세마포를 입을 수 있다는 것, 즉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 식구가 죽어서 뺏뺏이 굳어 버리고 시퍼렇게 멍든 시체에 이긴자가 축복한 생수를 바르면 부드럽고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여러분은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일반 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한평생 목회를 해 온 신부나 목사의 시체가 푹 푹 썩어서 냄새를 풍기는데, 에덴성회에 한 번 발을 들여놓기만 해도 그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생수에 의해 아름답게 변합니다. 이것은 다른 보혜사의 조화로, 순교자의 얼굴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과 방불한 것입니다. **(행6:15 참조)**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안찰을 하면 2, 3초 동안에 그 사람의 자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원죄와 유전죄도 한꺼번에 소멸됩니다. 새벽 제단을 수십 년 쌓아도 되지 않던 것이 불과 2, 3초 동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안찰은 영의 생명을 부어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종을 통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경우에 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번 안찰을 받으면 원죄와 유전죄는 완전히 소멸되고, 자범죄만 문제가 됩니다. 기성 교인의 시체가 썩는 것은 원죄와 유전죄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

은 안찰을 받은 후에도 어쩔 수 없이 자범죄를 계속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1년에 서너 번 안찰을 받아 죄를 씻어야 합니다.

Chapter 13.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주후 근 2천 년 동안 전 세계에 걸쳐서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어, 오늘날에는 몇 남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에도 다소나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이 지상에는 기독교 신자가 약 10억이 나 되고,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교회에서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 말에 세상의 수많은 교인들은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기독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만드셨습니까? 마귀를 박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마귀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마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천사가 교만해서 마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저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인 것으로 가르쳐 왔고, 따라서 교인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데 어려울 것도 없고, 거치는 것도 없습니다. 마귀가 이런 신자들을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신자를 하나님이 필요로 할까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마귀가 무서워하는 존재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지음을 받은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굴복하자 하나님은 이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당신의 종을 내세워 역사해 오셨는데, 구약 시대에 말라기 이후로 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시킬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세레 요한 때까지 약 400여 년 동안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백성들이 제사장과 서기관 등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올렸습니다. 물론 그 제사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될 리가 없습니다. 하늘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약 400년이 지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초대 교회가 생기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2천 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대표적인 목회자는 그 규모야 어떻든 온 세상의 주를 모시고 선(눅4:14) 감람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감람나무가 어둠의 세력 아래 들어갔다면 기독교

교가 패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나는 마음이 몹시 언짢고 착잡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갑니까?

주님은 땅에 계실 때 “사실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요16:7)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익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순교를 하지 않아도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길이 실제로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길이 실제로 열렸는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에게 내려보낸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열성적인 성도들을 계속 죽음으로 몰아넣어야만 했습니다. 당하는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주시는 주님도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축복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비참하게 죽어 가는 것을 주께서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섭리가 그러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왜 순교를 해야 하는지도 깊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 가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병으로 삼기 위해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수의 성령이 오면 사정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를 위해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엄청난 희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안타깝고 절박한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같은 성령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것이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인 줄 알았습니다. 앞선 역사의 주인공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밑에서 목회하던 나도 그렇게 알았고, 또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주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만일 생수의 성령이 오순절 날 임했다면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고통은 당해도 순교하는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열성적인 성도는 주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요, 영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순교를 해야 한다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 성도들이 죽지 않고 순교자의 대열에 동참하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오랜 고정관념을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단계적으로 서서히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 역사의 귀증성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뿌리부터 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열성을 부려도 하나님의 섭리와는 동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잘 깨달아 거기 적응하여 신앙을 지켜야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신앙 운동은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주를 따르는 자의 수가 많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것입니다. 발등상 시킨다는 것은 상대를 멸한다는 뜻인데, 멸한다는 것은 평화 시에는 있을 수 없고, 대치 상태에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접전이 있어야 멸하게 됩니다. 즉 발등상 시킨다는 것은 신(성령)과 신(악령)의 전쟁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마귀의 박멸인데, 마귀가 박멸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100억이 되어도 만유를 회복하시려는(행3:21) 하나님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습니다. 기독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일이 뭐냐? 마귀를 박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기독교회는 마귀의 정체를 알지도 못합니다. 적을 모르고 어떻게 적을 무찌를 수 있습니까? 마귀를 무찌르는 주 무기가 무엇일까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기 위해 인간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때 종을 세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때 하늘문

을 닫으신 것처럼, 앞선 역사가 무너져 은혜의 문을 닫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나름으로 믿고 위로는 받겠지만, 하나님과의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큰 소망 가운데 영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Chapter 14.

주님은 왜 알곡성전을 지으라고 지시하셨는가?



인간은 영의 세계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을 지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의 영향력이 우리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점을 이용합니다. 즉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영의 세계를 그리워하고, 그 세계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한사코 가로 막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든 안이한 차원에서 신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생각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이라는 수는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며,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앞선 역사에서 비로소 14만 4천의 필요성을 조금 강조하다가 그대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해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도 분명히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색다른 역사를 요구하시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일찍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직접 만나 가르치기도 하고 지시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승천하신 후에는 사람을 직접 대하실 수 없으며, 영광의 주로 계십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주님은 땅에 계실 때 하시고 싶은 깊은 말씀이 많았지만 하시지 못했습니다.(요16:12-13) 그리고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시고 그 자상한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이 중요한 계시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이 땅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그것을 처음으로 전한 사람이 앞선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그 지경이 되어 버려, 우리의 역사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구 작업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

리의 역사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알맹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역사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다시 새사람이 들어온다면 인원수만 유지되지, 알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 제가 나온 것입니다. 일반교회처럼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역대에 몰랐던 감람나무의 체계를 알고 실제로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일반교회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알곡을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실제로 알곡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알곡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이 뭐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영적 하늘 군병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이 이긴자의 종교 운동입니다. 그 전에 기독교 역사상 아무리 훌륭한 종교 운동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이긴자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이 현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날까지 마귀의 정체를 알고, 이에 대적할 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6천 년 역사는 마귀를 소탕하기 위한 작업이며, 메시아도 그래서 필요하고, 이긴자도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기독교는 이에 대해 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앞선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 받고 죄 안 지으면 그것으

로 다 되는 것으로 가르쳤고, 따라서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 역사에 동참하여 교역자 생활을 한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의 창과 속에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쳐 가면서 열심히 믿었습니다. 시집 장가 안 가고, 학교 공부도 중단하고 청춘을 희생해 가면서 따랐습니다. 그 이상 더 어떻게 잘 믿습니까? 순교자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고생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어둠 속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 버림을 받으면 도리가 없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주를 모시고 선 감람나무가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면 기독교 자체가 패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 여세를 몰아 주님에게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감람나무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마귀의 세력을 제지하는 교두보를 만들고, 계획대로 하늘 군병을 무더기로 배출시켜야 합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이영수가 예뻐서 주님이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귀여워서 이 역사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필요하여 일으키신 역사입니다. 알곡성전 지어라,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요.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이러쿵저러쿵 항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좋든 싫든, 그 뜻대로 움직이면 상주시고, 움직이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 겁니다.

“내 피를 짓밟은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 이것이 주께서 저에게 하신 간곡한 당부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역사에 사람을 불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 발로 이곳에 온 줄 알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손길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누가 오든, 나한테 왔으니까 나는 그에게 은혜를 부어 줍니다. 내가 안찰하면 주의 것이 들어갑니다. 저를 통하지 않고 주께서 직접 내려다보시고 은혜를 끼쳐 주신다면 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성령은 직접 주시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계21:6-7

참조)

성경에 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왕 노릇한다고 했습니다.(계20:4) 즉 순교자라야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여 세마포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만 해도 기독교 신자가 천만이 넘는데, 주를 위해 목 베임을 당한 순교자가 있습니까? 감람나무가 나타나기 전에 선교 활동을 하거나 제단을 개척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간혹 있었을 뿐입니다.

왜 교회에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은데 주께서 따로 지시하여 독특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무엇 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목 베임을 받지 않고, 즉 순교하지 않고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이 만들어지려

면 생수의 성령이 와야 합니다. 그 내막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는 이 계시록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인용하다가 그만둡니다. 그러므로 이긴자가 뭘지 알지 못하고, ‘감람나무는 모세와 엘리야다.’ –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도도 하고 부흥도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는 주께서 “너희와 같은 수가 차기를 기다리라.”(계6:11)고 말씀하신 그 수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목 베임을 받아야 그 수가 만들어지는데, 오늘날 예수를 증거한다고 누가 목을 뱉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사자 굴에 넣습니까?

“14만 4천의 군병을 채워라.” 이게 주의 지시입니다. 재료는 하늘에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료가 생수의 성령이며, 이 성령은 이긴자를 통해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역사가 지상에 나타나면 마귀는 그곳에 총공세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안찰을 할 때 나를 거쳐 나간 것이 10개라면 여러분에게는 8, 9개가 제외되고 1, 2개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서 악령과 투쟁하는 가운데 제외된 나머지가 은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수록 안찰에서 실제로 받는 은혜는 줄어듭니다. 이 내용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의 주인공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부흥 집회에 수많은 군중이 모여 기적이 일어나 와와 하고 아무리 북적거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앞선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 떼처럼 모여들었습니까? 그러나 아무 성과도 이루지 못했

습니다. 참된 신앙 운동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하늘 군병을 차근차근 알차게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는 무(無)에서 유(有)를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주께서 밀어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악령의 갖은 훼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실제로 보아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전 건물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반교회의 건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지시한 땅에 내 집을 지어라.” 그래서 맨주먹으로 시작한 겁니다. 성전을 지었더니 “이 성전을 거쳐서 내 나라로 들어오리라.” 하고 그 광경을 이상 중에 보여 주신 겁니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오늘날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은혜 받아 이루어지면 그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Chapter 15.

세마포에 대하여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계19:7-8)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숙원이신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데 필요한 군병의 수는 14만 4천이고, 이들이 하늘나라에서 제사장과 왕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계20:6) 즉 하늘나라에 14만 4천이나 되는 국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오늘날 지상에 54억 인구에 170여 국가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하늘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의 국가 중에는 오늘날 중국처럼 인구가 10억이 넘는 큰 나라도 있을 것이고, 모나코처럼 인구가 5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동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

나 이것은 성경이 밑받침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14만 4천이나 되는 국가가 필요한가? 왕이 14만 4천 명이기 때문입니다. 왜 군병의 수는 14만 4천 명이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데 필요한 하늘나라의 전력으로서 예정하신 숫자입니다.

오늘날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국민이 선출하며, 따라서 국민이 있어야 대통령도 있지만, 왕은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혈통에 의해 정해지므로, 왕이 있어야 그 밑에 국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의 왕은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정해집니다. 이러한 왕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야 합니다.

아론의 반열에 의한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에 속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의 반열에 의한 제사장이 되려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혈통은 뭐냐? 그것은 피의 원리로, 이 피는 생수의 성령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선 역사를 ‘피의 역사’라고 부르고, 그 제단을 ‘피의 제단’이라고 부른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 곧 생수의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멜기세덱의 반열, 즉 14만 4천의 왕의 반열에 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떴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순교자들이 지성소의 제단 아래서 주님에게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

시러나이까?”(계6:10) 하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너희와 같은 순교자의 정해진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계6:11)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흰 두루마기’를 성경에서는 ‘세마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는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습니다. 앞에 인용한 말씀에 나오는 ‘세마포’를 받은 자들은 펠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을 상징합니다.(히6:19-20)

그럼 지성소에 간 그 영혼들이 이미 세마포를 입고 있었습니까? 입고 있지 않았으니까 입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 순교한 사람들에게 그 세마포를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 세마포를 순교하고 하늘에 간 다음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에는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생수의 성령을 받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주께서 세마포를 입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있을 때에 세마포를 입혀 줍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순교한 자의 영은 세마포를 입지 못해 직접 지성소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있다가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그 무덤이 갈라지면서 하늘에 오르게 된 겁니다.(마27:52-53 참조)

세마포는 기독교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실제로 입게 되는 겁니다.(계19:8 참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세마포를 입는다면 지상에 살면서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받은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가

있는 순교자의 영들을 마귀가 좌지우지 못하는 것처럼, 지상의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룰’(규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걸프 전쟁 때 보셨을 겁니다. 무작정 마구 때려 부수는 게 아니고 서로 지킬 것은 지키면서 전쟁을 합니다. 성령과 악령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룰’에 의해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단을 지키면서 나는 주의 언약을 잇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입장에 처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통해서 내 것이 나간다.” 하고 주님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이 언약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주께서 저한테 하신 이 말씀만 큼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당신의 종을 들어 쓰실 때에는 반드시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해서 듣는 사람은 그 언약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인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야 감동을 받아 그 종을 언약의 주인공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옵니다.”(마16:17)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네가 똑똑해서 잘 아는구나.”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옥중에 들어가 있을 때 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내가 옥중에서 축복한 생수로 시체가 변하는 것을 보고, ‘그게 아니구나!’ 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걸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즉 주께서 여러분에게 생수를 통하여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 가운데 움직인 바울은 그렇지 못한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뭔지 이름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안수를 하니 그들은 즉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행19:6) 하물며 예언적인 존재인 감람나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 이면에 언제나 주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는 사명이 사명이니 만큼,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갖은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 가면서도 주께서 밀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겨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역사가 이 땅에서 9만 명을 상대하여 시작되었는데, 오늘날 얼마 안 되는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적하는 세력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마련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주의 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는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찬송가의 가사 대로 ‘한 피 받아 한 뜻 이룬 형제자매’

입니다. 이것을 인간들은 잘 몰라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역사 안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가로막고, 발을 들여놓으면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양떼가 이영수에게 오는 것을 마귀가 가로막는 것은 이영수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가 마귀의 편에 서서 일한다면 마귀는 오히려 날 도와 줍니다. 그게 아니니까 희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피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그걸 지상에서 입혀 주는 것이 이긴자입니다. 주께서 이 작업을 대신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를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알고 보면 엄청난 얘기입니다. 복된 소식 중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으니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믿어 주기를 합니까? 이긴자를 올바로 깨달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내세우려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는 일반교회의 목회자들 처럼 성경과 많은 참고 서적을 뒤져 설교문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내 설교를 분석해 보니 6할은 그때그때 하늘에서 조정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그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단에 서서 설교하려면 마음의 준비도 하고, 적어도 기도라도 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아무 준비도 없이 단에 섭니다. 그러면 말이 나옵니다. 참으로 신비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감람나무의 그늘 아래 들어온 겁니다. 목적이 뭐냐? 두말할 것도 없이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마포를 입어야 하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마포를 입혀 드려야 합니다.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대사도들도 지상에서 세마포를 입지 못했습니다.(계6:11 참조)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생수의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앞선 역사의 주인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입혀 주는 사명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몰랐던 겁니다.

Chapter 16.

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목회자의 인도를 받아 가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믿어, 많은 교회가 부흥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날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식구가 여호와께서 지정해 주신 이곳에 따로 모여 하나님께 제사(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생각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 바알의 하나님을 섬기던 무리 가운데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며 어느 제사를 받으시는가를 입증해 보인 것을(왕상18:37-38) 상기하게 됩니다.

오늘날 50억이 넘는 인구가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것을 불러 전 세계의 유명한 교회들을 보여 주시면서, 그 교회들과 하나님 사이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

하여 남이 봐도 믿어지지 않고, 따르는 여러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시작하여,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이 오늘 이 시점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이겨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감추었던 깊은 내용의 말씀이 없었던들, 오늘날 우리 역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길을 가야 하는가? 꼭 이 길을 가야만 하나님의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우리는 이에 대해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서의 기본 원리에 의해 깊이 깨달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역사라면 여러분도 신기하여 힘이 나고 의욕이 생기겠지만, 시작부터가 권태요, 시작부터가 실망이 깔려 있었으므로 따르는 여러분 자신도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한 발짝만 밖에 나가 보십시오. 구름 떴처럼 모여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색다른 은혜가 있다면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룹니다. 그런 훌륭한 목회자들 밑에서 쉽게 믿을 수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처럼 어렵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어찌하여 이처럼 멀리 동떨어진 산속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한 생명 한 생명을 거둬들이시는가, 대체 신(성령)과 신(악령)은 어떤 관계에 있기에 이렇게 힘들게 역사하는가, 따르는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0여 명이 ‘메이플라워호’에 올라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에 정착하여 개척정신으로 미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에는 많은 교회가 하늘 높이 치솟고, 전 국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마펫,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의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개신교를 전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계시록에 기록된 이긴자 감람나무라는 독특한 인물이 나타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역사가 은혜의 창과 속에 승승장구할 때에는 하늘에서도 화답했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주님은 크게 당황하셨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어둠이 빛을 삼키면 악령이 득세하고, 빛이 어둠을 물리치면 성령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님은 은혜의 촛대가 옮겨진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마21:43 참조)** 왜 이렇게 되는가?

근 2천 년 동안 전 세계의 목회자들은 신학 공부를 하고, 4복음서와 바울의 신학에 따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아 잘살게 됩니다.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고 전도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그게 아닙

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치지 않고, 마귀를 박멸시켜야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는 성경을 연구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목회자들은 미리 제목을 정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많은 참고 서적을 읽고 나서 설교하지만, 나는 즉흥적으로 설교합니다. 나는 다음에 무슨 설교를 할까 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지난 주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나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설교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보혜사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보혜사가 임하지 않으면 진리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주님을 만나야 할 텐데, 믿는 자의 영이 탄 놈에게 끌려간다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지배자가 다른 것입니다. 즉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때가 되면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밝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너를 거처야 나에게 올 수 있다.” – 이것은 누구라도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계2:28, 14:16 참조) 오늘날 한 군데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누가 곧이들겠습니까? 더구나 몇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통해야 된다.’ – 이거 듣기 좋은 이야기가 못 됩니다. 말하는 당사자부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다니... 다만 주님이 가르쳐 주시

니 할 수 없이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의 시체가 아름답게 변하는 것으로 이를 확인할 뿐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에 복된 일이 있을 것이다.”(창17:6-7) 하고 말씀하셨을 때, 누가 이런 말을 곧이들었겠습니까?

내가 입을 다물면 여러분은 주의 근황조차 알 수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주님만 알 뿐입니다. 나는 이 4복음서의 말씀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그 복음서의 말씀에는 훌륭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 요긴하고 중요한 말씀들이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신 계시록에 실려 있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영광된 주님의 말씀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나는 복음서의 말씀을 결코 부인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는 주의 말씀처럼,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고자 하신 말씀을 다 하셨다면 구태여 늙은 사도 요한을 불러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당시의 각 교회에 전하라고 간곡히 당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계1:3)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 오순절에 내린 불과 같은 성령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성령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그 후 20세기에 걸쳐서 수십억의 기독교인을 상대하여 눈여겨보시고 이긴자가 나타나길 기다리시는 중에, 참으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 땅에서 그 이긴자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육으로 계시던 당시에 듣는 자의 심령과 귀가 아직 어려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지 못하셨습니다.(요16:12) 그래서 되도록 얕은 차원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나마 제자들이나 마리아도 그 말씀이 어려워 믿지 못했습니다.

즉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완벽한 체계를 심어 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갈릴리에 갈 터이니 그리로 오라는(마26:32) 당부를 전혀 믿지 않고, 한 사람도 갈릴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 보고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는데,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생전의 말씀만 전해 듣고 믿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의 말씀은 주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가르친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당신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간곡히 부탁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에는 깊은 내용이 별로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을 것입니다.

Chapter 17.

음부의 열쇠에 대하여



여러분이 영의 문제를 깊이 알게 되면 전에 알고 있던 성서의 지식이 얼마나 차원이 낮은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기라성 같은 선지 성인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일단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그 영들을 즉시 하늘나라로 인도하지 못하시고, 마귀가 음부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마27:51-53\)](#)

우리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계1:18](#))는 주의 말씀의 참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상에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이 없는 고로 선지자들의 영을 건지지 못했지만, 이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던 영들을 데려올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노아가 먼저 죽었으면, 노아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하며,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노아 할아버지, 여기 계시군요.” 하고 인사를 나눠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늘나라에 가서 먼저 가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저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니십니까? 여기서 만나게 되니 반갑군요.” 하고 인사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을 위해 살던 백성을 내줘야 하는 조건이 조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룰’(규례)이라고 합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마귀가 데려가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속수무책으로 아담, 하와를 마귀에게 내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시면 마귀는 속수무책으로 하나님께 내줘야 합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태초부터 서로 싸웠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 싸움에 필요한 역군으로 쓰이기 위해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불리한 조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창6:6)**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영을 데려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종들도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손에 넘겨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데려가실 수 있는 조건을 독생자의 희생으로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미리 알아차렸던들 예수

를 십자가에 처형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데려간 아브라함, 모세 등의 영을 빼앗긴다는 것을 알았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습니까?(고전2:8 참고)

음부는 누가 다스리는 세계입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잠근 것을 열어서 갇힌 영들을 데려온다는 뜻입니다. 그 광경, 즉 선지자의 영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을 마태가 이상 중에 보았습니다.(마27:52-53)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영들을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사망 연도는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은 동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아담도 빼앗기고, 아브라함도 빼앗기고, 모세도 빼앗겼습니다. 그리하여 그 위대한 종들을 하나님은 한 사람도 건지지 못하셨습니다. 만일 이들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데도 주께서,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요14:6)고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됩니다. 주님을 거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몰라서 못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데려가실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거치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긴자는 하나님의 섬리를 맡아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교회에서 여러분보다 100배 예수를 잘

믿던 분들도 세상을 떠나면 푹푹 썩어 가지만, 이 역사에 엮그제 들어와 예수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죽으면 아름답게 변모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마귀가 그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 거하는 영들은 어둠에 적응할 수 있는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상 중에 본 그 색깔은 초콜릿색이었지만, 하나님이나 주님은 온몸에서 빛을 발산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의 눈은 광채가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정면에서 볼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 빛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적수는 마귀의 괴수인 용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용의 세계에는 용의 사자가 있으며, 양자다 영체입니다. 성령은 성령대로 인간이 자기편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악령은 악령대로 인간이 자기의 편이 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골8:9)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쓰시려면 인간을 신처럼 만드셔야 합니다.(요 10:35, 뱀전4:6 참조) 하늘 군병을 배출시키는 작업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의 세계에 갈 수도 없지만, 설사 간다고 해도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귀의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마귀의 세계에 갈 수도 없지만, 간다고

해도 살 수 없습니다. 적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자가 인간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죽기 전에 각자 자기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당신의 세계에 인간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하고, 마귀는 마귀대로 자기 세계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세계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오늘날 주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만일 주의 종이 잠자코 있으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어둠의 세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 즉 보혜사 성령을 통해 극비리에 그 조건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주님은 주님대로 당신이 데리고 가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계시고, 마귀는 마귀대로 자기가 데리고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개 역할을 하는 자를 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이고, 용의 사자는 흔히 말하는 마귀입니다. 그리하여 사자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예컨대 다니엘을 도우려는 천사를 마귀가 가로막은 것이 그것입니다.(단

10:13 참조)

오늘날은 이 싸움이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사가 여간 불

리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은총이 내려지기까지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로막는 세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마귀의 조건이 유리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나중 역사가 하나님의 조건이 유리해지도록 서서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유1:9 참조) 데려가실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요14:2-3)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수백 번 읽어도, 그 깊은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Chapter 18.

영적 전쟁에 대비하라(1)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사110:1)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서의 지식 수준으로는 깊이 알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롬10:14-15)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모르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앞에 인용한 말씀에 나오는 ‘발등상’은 문자 그대로는 발을 올려놓는 상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뜻합니다. 이 전쟁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적을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적을 무찔러 발등상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귀가 발등상 될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주께서 직접 마귀를 발등상 시키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일은 주의 지시에 따라 주의 피권세로 인간이 해야 합니다. 그 야전 사령관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자’요 ‘감람나무’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마귀가 발등상 될 때까지 하늘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은 주께서 육을 입고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은 요컨대 당신을 대적하는 마귀를 발등상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마귀라는 강한 적대 세력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영수가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이 교회들이 오늘날 마귀를 발등상 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 같은 건 거들떠보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도 귀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이 불러 주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은 마귀와 싸우는 하늘 군병이 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버림을 받고 맙니다. 앞선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가 싹수가 노랗게 되자 버림을 받아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단9:4)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을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둘째 감람나무라면 첫째 감람나무가 알아서 두말 없이 배턴을 넘겨줄 게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이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일단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을 마음대로 하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성서는 이런 예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우리는 사울과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삼상10:1)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눈 밖에 났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당장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후계자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위를 인계시키시려고 사울에게 이모저모로 다윗이 기름부음 받은 종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내 후계자를 세우셨으니 내 자리를 물려줘야지’, 하고 선선히 물러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마음대로 하십니까? 못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눅4:10)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내가 청량리 셋방에서 20여 명을 놓고 이 역사를 시작하면서, “주인공은 바뀌어도 감람나무의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고, 따르는 사람들도

의심하여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아는 것입니다. 적을 모르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만 알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막강한 마귀의 세력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믿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영적인 깊이를 모르고 그냥 믿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 긴 세월을 허덕여 온 것은 하나님의 적을 올바르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지상에서 적을 멸망시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적을 잘 모르고 믿기만 하니 그 수가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선 역사도 은혜는 놀라웠으나 적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적의 정체를 드러내어 작살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가려 있던 베일이 밝혀져도 세상은 반응이 없습니다. 있다면 이단시하는 손가락질이 고작입니다.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대신학자의 말이라면 몰라도, 겉으로 볼 때 아무 존재도 없는 이영수의 말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전하는 역대의 종치고 세상 사람들

의 존경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입에서 신령한 생명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비린내 나는 고깃배 위에서 20여 명 모아놓고 열변을 토하시다니 말이나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을 어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당신의 적에 대해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나 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출20:3)고 말씀하셨을 뿐, 그 신의 강한 도전과 그 퇴치에 관해서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앞선 감람나무의 역사까지도 무너지게 되자 마귀의 정체와 이를 복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중 종에게 가르쳐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입니다. 세상 전쟁도 그렇지만, 신의 전쟁에서도 패자는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이기고 봐야 합니다. 앞선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이 한사코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와중에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 여러분 속에서는 성령과 악령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은 감동을 주어 여러분을 끌어가려 하고, 악령은 이를 갖가지로 훼방합니다. 우리의 역사가 어려운 것은 이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사실 상 큰 권능이 와 있어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영의 귀중성을 알려면 믿음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속에 그까짓 집 몇 채 지은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나고 말할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곳은 건축 허가가 나올 수 없는 군사 보호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지으라고 지시하셨고, 그 지시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도 처음에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선 역사에서 ‘승리제단’을 짓는다고 현금 거두어 판매했는데, 저도 똑같은 놈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육 가운데 밀어주셨기 때문에 일을 무난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경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총회장이 자식도 없는데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집을 저렇게 자꾸 짓나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 외에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진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견한 것입니다.

Chapter 19.

영적 전쟁에 대비하라(2)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에서도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합니다. 지면 상대방의 지배를 받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악령을 굴복시키면 마귀에게 속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지시하면 하나님께 속했던 모든 것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자의 싸움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계교와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에게 빼앗긴 인간을 다시 빼앗아 원수를 갚는, **(계6:10 참조)** 즉 마귀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알고 섬길 때에는 신앙 문제가 간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님을 대신하여 마귀와 싸워 마귀를 박멸시키는 전쟁을 해야 할 경

우에는 하나님과 주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를, 즉 멸망시켜야 하는 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의 동태를 모르면 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적을 알아야 상대를 코너에 몰거나 함정에 빠뜨려 항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지상에서 인간을 통하여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재료(성령)를 무기로 인간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전쟁을 하나님이나 주님 또는 천사가 직접하신다면 구태여 인간에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6:10)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야전 사령관 격인 이긴자 감람나무가 나타나면 예수를 믿으라는 종교 운동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무기를 받아 주님에게 대적하는 악령을 퇴치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주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온다고 하였는데,(계19:15) 이 검은 전에도 말했지만 무기를 뜻합니다. 이 무기로 적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기성교회에서는 인간을 위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는 것은 구속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인간을 평안하고 즐겁게 만들려고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시기 때문에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를 박멸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고로 하나님의 철천지원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과 교류하는 데 그친다면 마귀는 잠자코 있습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무기를 받아 자기를 대적한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마귀는 자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을 미리 알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파괴공작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도 마귀를 무찌르기 위한 비상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유리한 일이 있기에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선지 성인의 영들을 마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피권세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마귀를 박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조건을 만드셨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구출하려고 하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감옥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만들어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빼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자물쇠로 잠긴 옥문을 열 수 없으면 아무리 빼내고 싶어도 빼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선지 성인도 죽으면 마귀가 데려가서 음부에 가둬 버리니 그들을 음부에서 데려오려면 음부의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

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열쇠를 갖게 되신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열쇠를 갖고 계셨다면,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음부에 갇혀 있는 자들을 건져 내겠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계1:18 참조) 이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전략에 감쪽같이 속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귀는 자기가 가둬 놓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쩔 수 없이 내줘야만 했습니다. 마귀가 일찍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데려간 것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데려간 영들을 도로 내줘야 하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문제로,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가 내준 것은 하나님의 종들과 순교자들의 영이지, 일반 신도들의 영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덤이 열리매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마27:52)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옛날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훼방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참소한다.”(계12:10)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는 그럴 것입니다.

인간이 나빠서 진리를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인간의 생각을 돌려 버리는 것입니다. 계

시록에는 싸우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마귀와 싸울 군병이 되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귀를 알아야 합니다. 적을 모르면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하고 가르치는 목자라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내 원수가 이 놈인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놈을 이러저러하게 작살내야 한다. 내가 네게 이러이러한 재료(무기)를 줄 터이니, 너는 이놈을 상대해 싸워라. 네게는 이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마귀가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니 싸워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라.” 이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다면 구태여 ‘이긴자가 나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2천 년 동안이나 기다리실 필요가 어디 있었습니까?

용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자기 세계에서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휘방하도록 지령을 내리고, 지상에서 드리는 제사, 고사, 염불 등을 받는 것입니다. 적이 밤낮으로 괴롭힐 때, 어떤 사람이 쌀도 갖다 주고 과일도 갖다 주면 그것도 물론 고맙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일 고마운 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적을 물리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적을 물리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잘 믿고 당신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백 배 더 반가운 것은 주님을 괴롭히는 적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이런 존재가 나타날 때 주님은 그 이상 반가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귀는 지

상의 임금(정치), 재벌(경제) 할 것 없이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용의 부하인 음녀가 그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음녀를 성경에서는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계17:5)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지상에서 초강대국이 되어 대제국을 이룩한 나라로, 오늘의 이라크가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 후세인은 20세기 느부갓네살 왕으로 자처하여, 옛날에 누렸던 바벨론 제국의 영화를 되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계16:20) 큰 악의 세력이 꺾인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음녀가 전 세계를 지배하며, 그 밑에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음녀가 무너지면 천 년이 지난 후 무저갱에서 짐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계11:7) 그리하여 짐승이 주동이 되어 싸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짐승을 멸하여도 왕초인 용을 멸하지 못하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참소하던 마귀’(계2:10)를 차단시킨 존재가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주님을 괴롭히게 됩니다. 주님이 장벽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장벽이 많을수록 쳐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결프 전쟁 때 미국은 후세인의 고향 출신 특공대를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는 육탄으로 적을 공격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가 그런 정예부대였습니다. 신라와의 전쟁에서 패할 것을 미리 안 백제의 계백 장군은 처자를 손수 죽이고 출전하여 과감히 싸우다가 전사하였고, 신라에서는 그가 적장이지만 그 충성심이 가늠하다 하여 정중히 장례

를 지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 군병은 마귀와 과감히 싸워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두려워 꿈무니나 뺄 생각을 한다면 그는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대적하는 마귀를 가로막는 장벽이 필요합니다. 그 장벽의 역할을 하는 자가 이긴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연고로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자 마귀는 주님을 대적하였는데, 이긴자가 나타나 주님이 권한을 이긴자에게 맡기면 마귀는 이긴자와 대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은 이긴자만 도우시면 되고, 마귀와 직접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긴자에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나 대신 나가서 싸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마귀를 상대하여 능히 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긴자는 음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계11:3, 6) 그래서 주께서 “다시는 어둠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둠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침범치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께서 마귀가 침범하지 못할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긴자는 건드리지 못해도 그 슬하에서 하늘 군병을 배출시킬 수 없도록 갖은 것으로 방해합니다. 이런 마귀와 싸우려면 빛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음녀를 무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을 성경은 ‘이한 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계19:15) 하나님은 이 무기로 용과 그 부하를 사로

잡아 무저갱에 가둡니다.(계20:3)

그리하여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이 일단 꺾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천 년이며, 천 년이 차면 용과 그 부하를 놓아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한 작전상의 후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이때의 천 년은 지상의 시간 개념과 다릅니다.

용은 전력을 보강하여 더 큰 세력을 내보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계13:4)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아서 싸우게 되면 이때부터 문제가 달라집니다. 짐승은 용과 더불어 여자(주의 신부)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을 총공격하므로, 여자가 도망가게 됩니다.(계12:6) 그 기간이 영적인 차원에서 1,260일입니다. 그리하여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이 진을 치고 있던 거룩한 성은 마흔 두 달 동안 짓밟히게 됩니다. 이것은 짐승이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에 의해서입니다.

그 후에 도망갔던 하늘 군병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다시 짐승을 향해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14만 4천의 하늘 군병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용의 권세가 모조리 짐승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자도 물리치지 못합니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 진두지휘를 하시는 것은 이 때 문입니다.

이때 광야에서 양육 받은 하늘 군병이 주의 뒤를 따릅니다.(계

19:14) 그리하여 양 진영 사이에 일대 접전이 일어납니다. 양 진영이 총공세를 감행하여 짐승이 지면 다시 용이 싸우러 나오는데,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용의 세력을 다 멸하고 용이 항복하게 마련입니다.(계20:10) 그리하여 만유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행3:21) 그래서 다니엘이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야 죄악 세상이 끝난다고 말한 것입니다.(단12:7)

왜 일반교회에서는 열심히 믿는 분들이 죽으면 썩어 가는데, 여기서 잘 믿지도 못한 사람이 내가 축복한 생수를 바르면 시신이 아름답게 변하는가? 음녀가 주장하는 마귀가 이긴자를 능가한다면 그 시체는 피어나지 않습니다. 잘 믿고 못 믿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조화입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수십만 명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은 못합니다. 백만 명이 모여도 내가 배출시키는 영적 알곡은 단 한 사람도 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섭리'라고 합니다.

Chapter 20.

주님은 어찌하여 ‘길’이신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들, 심지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도 주님을 통해야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당신의 종, 아브라함이나 모세, 이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도 그들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을 구하지 못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음부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어둠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주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13:36) 하고 물었을 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2-3)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승리한 피권세로 천국에 가는 길을 마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생존해 계실 때에는 죽은 자의 영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노릇입니다. 마귀가 그 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결정적인 작업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지라도 일단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26:39)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힘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신의 뜻을 거둬 알리셨습니다. 그러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죽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에 올라가신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가 아들일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

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히5:8-10) 이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계에서는 하늘에 오르신 영광의 주님에 대해서는 그 근황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시록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계시록은 그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에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마무리되는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그 봉함한 것을 떼는 자가 나타나야 비로소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단12:9 참조) 계시록에는 주께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취한 책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계5:7-8 참조)

그러나 기독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2천 년 동안 바울의 신학 체계 아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믿어 왔습니다. 이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내용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새로운 신학은 계시록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계시록은 그 주인공이 아니면 자세히 알 수 없고, 따라서 올바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성직자들이 저마다 훌륭한 설교를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지를 순례하고,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성경을 줄줄 외우다시피 해도 오늘날의 주의 근황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데 신학교 문턱에도 못간 내가 이 단상에 서서 그들이 못하는 말
씀을 터뜨린다면 이것은 계시록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 방방곡곡에 찾아다
녀 보십시오. 이런 설교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
을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하나님이 최고이고 주님만 제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
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뜻대로 못하시고, 주님도 마음대
로 못하시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서 범죄한 아담,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내쫓았겠습니까? 그들
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변하여 가까이 둘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적대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
자라. 그 아들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계12:4-6)

여기서 여자는 주님의 아내로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을 말하고,
남자는 주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자는 주님을 낳았습
니다. 육적으로 주님을 낳은 어머니는 마리아지만, 여기서 ‘해산’이
라는 말은 여자가 자기 사명을 다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늘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이며 이것이 곧 ‘남자’(주님)의 해산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의 의로운 성도들의 수가 차는 것이 곧 아들을 낳는 일입니다.

하늘 군병도 적이 쳐들어오니 도망치게 됩니다. 이들이 낳은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저갱에서 마귀(짐승)가 올라온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잠시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신 영광의 주님은 마지막 때에 될 하나님의 섭리를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인자(人子)로서 말씀하신 가르침만 알고 있는 백성들을 그대로 방치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지상에서 육을 입고 가르치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영광의 주님으로서 다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사110:1) 따라서 주님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자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미 두 감람나무를 책정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두 감람나무를 택하셨으며, 그 역사가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역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앞선 역사가 파산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종교

단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생수의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 수보하는 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앞선 역사를 큰 회사로 친다면 이 역사는 아직 노점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경영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큰 회사를 경영하는 방법으로 노점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는 손님들 상대로 “이것 하나 팔아 줘쇼.” 하고 매달리는 것이 노점상입니다.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얹전히 매고 목에 힘을 주고 도장이나 뽕뽕 찍는 사업과는 판이합니다. 잠바 차림으로 물건 하나하나를 오가는 손님에게 팔아야 합니다. 그러니 시키는 자나 그 지시를 따르는 자나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만큼이라도 이뤄 놓은 것입니다. 만일 오순절에 내린 불과 같은 성령이 감추었던 만나라면 구태여 이긴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불과 같은 성령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긴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계2:17)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흰 돌’은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혔다.’는 그 돌입니다.(속3:9, 계5:6) 그러므로 이 흰 돌을 받는 자는 일곱 눈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계5:6) 즉 보혜사 성령이며, 이 보혜사가 평생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유전죄까지 하루에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마련되면 마귀에게는 대단히 불

리하게 됩니다.

새벽 제단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며 열심히 믿는 사람도 내가 한 번 안찰하면 큰 고통을 느끼지만, 다음부터는 별로 고통 없이 쉽게 은혜가 가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한 돌에 박힌 일곱 눈의 조화입니다. 그 돌을 가진 자는 그 돌에 박힌 일곱 눈의 위력으로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것입니다.(속3:9)

요한복음에 “다른 보혜사가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요16:8)고 하였습니다. 심판은 원래 천년세계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상에서 미리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권한입니까?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심판의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가 땅에서 정하면 하늘에서 그대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마18:18 참조) 즉 그가 땅에서 이렇다고 정하면 하늘에서 재심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보혜사 성령의 위력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주의 종이 생수 축복을 하면 그 순간에 정해 집니다. 1년에 서너 번 안찰을 하여 주의 종이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시신이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보혜사 성령의 조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 종교 운동과는 그 종류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에 대해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 가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마땅한 것도 있고 마땅치 않은 것도 있을 것

입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과 직접 대화를 하며 이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일곱 눈이 박혀, 일곱 영의 역할을 하는 흰 돌을 쥐 자가 하는 것입니다.



(재)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Part 03.

은혜의 단비에 젖어



21. 영의 눈을 뜨라 · 22. 빛과 어둠의 싸움 · 23. 선한 일에 낙심치 말라
· 24. 보혜사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 25. 제 2의 도약을 위하여 · 26.
바울 신학과 감람나무 신학 · 27. 하나님의 뜻을 알라! · 28. 한 때, 두
때, 반 때에 대하여 · 29. 솔로몬 성전과 알곡성전 · 30. 우리의 갈 길

Chapter 21.

영의 눈을 뜨라



우리가 잘 믿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기 본위로 믿게 됩니다. 그리하여 열성은 부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맙니다. 주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을 연구하여 그 가르침에 따라 잘 믿으려 애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 사람은 성경을 깊이 상고하여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도 거의 읽지 않고 따라서 영의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은 붕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마13:16-17)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선 그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상대를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못하고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믿고 안 믿는 건 나중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 당시의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이처럼 도외시하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니 깨닫고 자시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전부터 알고 있는 고정된 개념으로 메시아를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도 그 잘못을 알지 못했으며, 오히려 자신들은 정당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쁜 놈은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죽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쪽에서는 주님이 옳지만, 못 박아 죽이는 쪽에서는 자기가 옳은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은 더러 있었으나, 메시아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16:16) 하고 말할 때,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라.”(마16:17)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선지자 정도로 보아서는 곤란합니다. 전자는 창조주요, 후자는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와 선지자가 가는 길은 전혀 다릅니다. 메시아는 메시아의 길을 가야하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시 말

해서 메시아가 선지자의 길을 가도 안 되고, 선지자가 메시아의 길을 가도 안 됩니다. 또 실제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아가 메시아의 길을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메시아의 길을 가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메시아의 길을 가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됩니다.

세레 요한이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오리라 한 엘리야’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핍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권위주의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제사장의 아들이라, 그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도 거부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너도나도 앞을 다투어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권위를 세울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당당히 자기 길을 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각오로 “나는 세상에 엘리야의 분신으로 왔다.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한 엘리야가(말4:5) 바로 나다. 내가 나타난 것은 내 뒤에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이다.” 하고 말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앞뒤가 맞는데, 그는 “당신이 누구입니까?” 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을 때 자기가 맡은 사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사명을 밝히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자기에겐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메시아는

증거하기 어려웠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길을 가실 때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차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 당신의 정체를 조금씩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 후로 당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심기 위해 무던히 애쓰셨습니다. 그 존재가 심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심지 못하면 설사 오천 명이 떡 먹으러 모여들어 도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오천 명이 아니라, 오만 명, 오백만 명이 모여들어 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 수가 놀랍게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마16:13) 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신앙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위를 걸어가면 뭐 합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앓은뱅이가 일어나면 뭐 합니까? 주님의 정체가 올바르게 드러나 보이지 않으면 모두가 헛일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베드로를 극구 칭찬하셨습니다.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도 상대방이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는가는 세례 요한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는 하나님의 영음을 분명히 듣고도 예수님을 끝까지 메시아로 믿지 않은 것으로도 잘 알 수 있

습니다.(마11:3 참조) 메시아를 믿기란 사실상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은 메시아를 체계화하시기 위해 무던히 애쓰셨지만,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체계를 심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갈릴리로 갈 터이니 거기서 만나자.”고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마26:32, 28:7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 갈릴리는 주께서 처음 전도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비교적 깊었다는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을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주님이 메시아를 심기에 얼마나 고전하셨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비단 주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이긴자 감람나무라 하여 따르고 있지만, 믿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도 못 믿나? 나 같으면 믿을 텐데.’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을 터뜨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도 지금 이긴자 감람나무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면서도 그 믿음이 각양각색입니다.

겉으로는 이긴자도 여러분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과 다른 어떤 표가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눈이 뜨이지 않고서는 알아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도 그런데, 주의 종의 경우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선불리 껌질만 알아 가지고 그제 전부인 줄로 속단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주의 종은 이 역사의 내용을 한꺼번에 밝히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반 목회자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지만, 내 설교는 신앙 연령이 1세에서 10세에 해당되는 내용 등, 각각 그 단계가 다릅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깊은 말을 해도 인간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로서 감람나무를 따르면서 신령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어디까지 소화하고 있는지 한 번 조용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역사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긴자와 호흡을 같이하느냐 못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반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와 하고 물려왔다가 한꺼번에 와 하고 나가 버려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시 자리를 채우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도 그 교회는 계속해서 성공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사에 몸을 담은 사람이 주께서 요구하시는 하늘 군병으로 만들어지느냐의 여부가 문제인 것입니다. 처음에 나올 때에는 심령이 어려도 나중에 알곡으로 익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다. 일정한 성장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단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실을 보지만 주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뿌리치지 않고 감당할 때 승리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과 악령의 싸움은 장장 6천 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100년 전쟁도 지긋지긋한데, 참으로 장구한 세월을 싸운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과 악령은 서로 얼마나 앙숙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역사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상대하여 싸우는 데 필요한 군병을 기르는 훈련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이 평안히 주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시니, “건방지다. 죽여라!”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제사장 가야바는 주님에게 다른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바로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당신의 말 그대로다.” 하고 주께서 대답하시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하여 심문을 중단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을 들어 보니, 귀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압박 운운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면 죽일

놈이 되겠지만, 정치나 사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만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고, 인간의 아들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통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자기를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면, 천하에 그보다 더 고약한 놈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긴자 감람나무만 빼고 성서를 증거하면 누구나 쌍수로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다, 이긴자다 하니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나무가 있다가 형편없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웬 놈이 또 나무를 들고 나와 자기를 통해야 한다고 하니 미움을 살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외치라고 하시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Chapter 22.

빛과 어둠의 싸움



하나님의 역사는 계획에 의해 진행되며, 따라서 그 계획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이해하고 거기 적용하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말을 많이 합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소망을 뜻하지만, 그것은 또한 고통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달게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남김없이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달게 받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앞서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자기 나름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

하면서도 그런 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을 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적응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역사를 거역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깨달아 적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이 되지만, 깨닫지 못하여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마10:34)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차이에서 빚어지는 현상을 미리 내다보고 하신 영적인 말씀입니다. “너희 가족 중에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은 자는 나의 편이 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나를 원수시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 가정 안에서도 양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양자는 물과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바로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면서도, 한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얼른 내주지 않게 하셨습니다.(출10:27) 왜냐하면,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속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달라고 말하자마자 바로가 곧 응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관심을 갖고 교류하시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는가를 알리려 하시고, 애굽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끼는 선민임을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따라야지, 인간의 생각으로 가타부타 논해서는 안 됩니다. 또 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유를 대고 말이 많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응답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사이는 ‘너는 너, 나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등 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친형제인데도 살인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여러분에게 체계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인 차원에서 깨닫고 따르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여 시험에 드는 사람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 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계14:4) 감람나무의 역사에서 주인공이 주님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가지들에게 알리면 좋든 싫든, 즐거우나 괴로우나, 거기 적응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거역하면 영이 죽습니다. 그것이 내 개인의 일이라면 죽고 사는 문제가 제기될 수 없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교회에서는 감람나무의 역사를 이단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물론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의 생각에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감람나무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들의 판단에 일리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옳게 보시지 않습니다. 왜? 당신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역사 자체부터가 얼마나 인간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쉽사리 납득이 가는 것이 감람나무의 역사라면 기성교회가 깨닫고 호응할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감람나무의 역사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이라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앞선 감람나무의 역사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가는 판인데,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끌어 가는 주의 종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주의 종의 말을 거역하면서 주님께 잘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 종의 지시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시를 거역하면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거스르

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추앙을 받아도 주님의 눈 밖에 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단시하고 정죄한다면 어떻게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누가 시킵니까? 인간이 시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시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눈에 거슬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모처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자기 생각을 앞세워, 참새가 방앗간을 스쳐 지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으로 성공하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를 영적인 차원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Chapter 23.

선한 일에 낙심치 말라



배를 타고 항해하는 도중에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선장은 그 거센 파도를 탈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유능한 선장은 그 폭풍을 이기는 지혜를 발휘하지만, 미련한 선장은 겁이 나서 도망치다가 바다 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신앙의 운동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면으로 돌파해야지, 어려움을 피한다고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딪칠 일은 부딪쳐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보여 주셨을 경우에는 어떤 여건에 처해 있더라도 정면으로 부딪쳐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알곡성전을 이룩한 비결이었습니다. 만일 주의 종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라 힘에 부치기 때문에 피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일은 피하되, 어차피 부딪쳐야 하는 일은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감람나무의 역사에는 애로와 난관이 많습니다. 오늘날 감람나무라는 ‘감’ 소리도 입 밖에 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역사에는 사나운 해일과 폭풍이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 각오는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면 돌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면 돌파를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알곡성전을 지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지시를 내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내가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이 알곡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자의 헌금은 절대로 받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알곡성전의 건축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도 터러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불평하는 줄 알고 있지만, 그 불평은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일거일동을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불평했을 뿐, 주님에게 불평하지 않았다.”고 자위한다면 착각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자는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를 무시하는 자는 보내신 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10:40**

참조) 나는 다만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이 알곡성전을 시작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성사될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지시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뒤를 계산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시작한 일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험에 의해, 하나님의 명령이면 안 될 것도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될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늘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명령이 떨어져도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역대 하나님의 종들은 대개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마무리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앞선 역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보다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 중에도 처음에는 잘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작하는 심정을 지녀야 합니다. 알곡성전을 짓고 4별관까지 완성했으니,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한때만 충성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계2:10)고 하셨습니다. 경주에서는 마지막 테이프를 잘 끊어야 합니다. 중간 지점에서 아무리 잘 달려도 테이프를 끊지 못하면 패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끊는 테이프는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 될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려야 합니다. 4별관을 지었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고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물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지시를 이뤘다는 자부심은 가져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공로를 내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잠시도 중단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중단하면 썩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뒤를 보아서 안 됩니다. 언제나 앞을 보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앞에 있지, 뒤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 2의 롯의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창19:26)**

앞선 역사를 보십시오. 고생만 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역사에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라운 은혜의 창파에 젖어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구난방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말씀의 뒷받침이 없어 방향 감각을 잃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성만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죄를 짓고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역사의 주인공을 하늘처럼 받들었으며, 그분이 영적으로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었으므로 다들 그 밑에서 살아 주를 믿을 줄로 믿고 뛰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일반교회의 신도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지만,

적어도 감람나무의 가지에게는 그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그분의 존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그분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은 쪽정이 같은 우리를 다시 한 번 기대하시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시어, 주의 종은 그 말씀과 은총 속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여러분 중에는 이것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둔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어떻게 하면 따르는 양떼들을 주 앞에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영의 세계를 올바르게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의 세계를 그리워하는 신앙인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의 세계는 너무 멀고, 현실은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주의 종대로 끝까지 가르쳐야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주의 종의 말을 믿고, 어렵더라도 닥치는 시련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실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지시라도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나는 체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해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덮어놓고 사이비니, 도깨비니, 하고 욕하기가 일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의지할 상대는 하나님과 주님뿐입니다. 지상에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중에 땅을 치면서 한탄하니,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지금 감람나무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꾸준히 감람나무를 증거해야 한다.”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앞선 역사의 주인공은 신앙촌을 세워 교인들을 사회와 격리시켰습니다. 입주자로 하여금 바깥 세계를 못 보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홍천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서울에 와서 원효로 제단에서 예배를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제단에서는 뱃놀이도 하고 수영도 하는 한강이 내다보였습니다. 단상에서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창문을 통해 한강에서 수영하는 사람을 내다보면 여러분이 눈이 썩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커튼을 내립니다.” 이 정도로 강하게 구속했습니다. 영화 간판이나 프로를 보지 말라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덕소 신앙촌 안에서 남녀가 길에서 서로 만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도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보다 더 철저한 율법주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신앙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심령이 맑아졌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시기, 질투하고 모략중상하는 일이 비

일비재했습니다. 그렇게 울타리를 치고 엄하게 이끌어 갔는데도 나는 선한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선한 척하고, 안 보는 척 할 뿐,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니다. 회칠한 무덤이 판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에 가두어 신앙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냥 개방합니다. 지금 우리 역사의 일면을 보면 답답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단계를 거쳐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꾸준히 내실(內實)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밖에 일체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정도로 신앙이 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목표가 무엇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이 아닙니까?(계19:8) 그런 세마포는 누구나 간단히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련과 연단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낙심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했습니다.(갈6:9) 신앙에서 낙심은 적입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더욱 열심히 하면 됩니다. 언제나 소망과 용기를 갖고 분발하기를 바랍니다.

Chapter 24.

보혜사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역사가 별로 깊지도 않은 한국 기독교에서 주의 두 증거자, 곧 두 감람나무가 나타났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앞선 역사가 그 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2천 년 동안이나 이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불과 같은 한 증거의 성령으로 직접 대해 오셨는데, 이 땅에 이긴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권한을 맡겨 역사하셨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이를 수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앞선 역사까지 어둠에 속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주님의 말

씀을 듣고 나는 대단히 암담했습니다. 나를 통해 은혜 받고 가르침을 들은 여러분도 이런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일반 기독교인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끌어 가는 나도 어렵지만 따르는 여러분도 답답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의 종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당신의 일에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잘못 들으면 자기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입니다.

옛날 주님이 지상에 오셔서 움직이실 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요14:9) 하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은 참람되다고 반박했습니다. 참람되다는 말은 주제넘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내가 이긴자다, 감람나무다 하고 증거하는 한 이단 소리를 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해 먹을 것을 못 먹고, 입을 것을 못 입고 충성해도 이단, 사이비로 몰릴 것입니다. 저들의 교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어받은 앞선 역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매장된 정도가 아니라, 입에 담기조차 꺼릴 정도가 되었으니 말 붙일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국만 해도 이 새벽에 예배 보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은 몇 백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도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영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 나가니까 주님도 조금은 안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주의 부름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역사할 때에 따르는 사람은 불과 몇 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는 바울 시대보다 더 어렵습니다. 아마도 기독교 역사상 우리처럼 어려운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안타깝게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보다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나라의 교계만 해도 제가 존경하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들과 영적으로 신앙관이 다를지라도 육적으로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생애를 마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 우스꽝스러운 감람나무라는 역사가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이 그들에게 도리어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그리하여 많은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으면 시체가 썩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나는 신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배워 신앙 안에 스스로 서기를 하늘에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긴자란 요컨대 이 마귀를 이기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긴자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긴자의 역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눅4:6)는 말씀은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역사가 차곡차곡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신기합니다.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내 성전을 지으라.”고 보여 주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를 하면 또 다른 것을 보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면 또 새로운 것을 보여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미리 이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 주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심부름을 하고 있지만, 신비하다 못해 두려움까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를 해코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내가 꺾이면 주의 역사가 꺾입니다. 앞선 역사를 보십시오. 그 세력이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그러나 그 주인공 하나가 꺾이니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수십만 명이 주를 위해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의 권한을 맡은 자가 꺾이면, 마귀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도 간증했지만, 이상 중에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때 주님이 나타나시니, 그 빛에 마귀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네 힘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상(異像)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의 빛이 아니면 이길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없으면 마귀는 물러가지 않고 계속 활동합니다.

오늘날 주의 종인 영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그 빛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백 번 설명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무장하여 적응해야 감동도 가고 은혜도 연결됩니다. 주의 종의 말을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주님이 그를 보시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의 가르침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하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주의 종을 통하지 않고도 은혜가 연결된다면, 일반교회에도 주님이 같은 은혜를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옥중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내가 축복한 물이 생수가 되게 하시고, 그 물로 시체가 변하는 것을 보여 주어 의심하는 여러분을 돌이키셨습니다. 나를 세워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내 인격을 보고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교회와 다른 점입니다. 유명한 목회자에게는 “저 목사, 훌륭한 분이야. 은혜가 있어.” 하고 말하지만, 저한테야 뭐 욕밖에 더 합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만큼 이루어 놓은 것이 저를 통해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사라지고, 보혜사 성령이 저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Chapter 25.

제 2의 도약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에서 기독교가 온 세상에 퍼져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된 사람의 수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12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오순절 날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아 기독교가 처음으로 탄생되었습니다. 그 후 근 2천 년 동안 갖은 어려움과 싸우며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순교의 정신으로 싸워 승리하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참된 종교로 자타가 공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역사에서 또 하나 특이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처럼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섬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지상에 오셔서 당신을 따르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들에게, 우선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이 예가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마5:3-4) 등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권위 있고, 학식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 복 받는 줄 알던 일반 이스라엘 서민들은 이런 새로운 말씀을 듣고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나 어부와 같은 하류층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크게 고무된 반면에, 당시에 평화롭게 잘사는 권력층과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주님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서서히 터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즉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요6:54) 하고 당시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날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다 차원 높은 이 영적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옆으로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심지어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하여 수군거렸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고 반문하시고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6:63)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어디까지나 영을 살리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시일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위해 살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수는 물론 영에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양적으로는 크게 발전하여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 신도의 수가 천만을 넘습니다. 이것은 같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한 단계 깊이 들어가 영적인 문제를 고찰해 보면 큰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오늘날 그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신앙을 올바르게 키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주의 따뜻한 손길이 음으로 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지만, 그것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신앙이 미약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귀한 것을 멀리하고, 썩어 없어질 육의 것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야 합니다.

인간의 약점은 악을 좋아하고, 선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에 바울도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기를 가리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롬7:24) 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20년, 30년, 긴 세월을 누우치고 분발한 결과 끝내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딤후4:7-8) 참으로 자랑스럽고 훌륭한 신앙의 경지입니다.

주께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영의 말씀을 던졌으나 아무도 믿지 않아, 주님은 몹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백성이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지 못하고, 누차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보혜사에게 미루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터이니,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하고 싶었던 영적인 깊은 말씀을 하시는 때가 온다.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진리를 증거할 때 스스로 말하지 않고, 바로 다른 보혜사 성령이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게 된다. 그때가 되면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그 귀중성을 알게 될 것이다.”(요14:26, 16:13-14 참조)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역사가 지구상에서 펼쳐진 적이 우리 역사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비로소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

는 섭리 가운데 부름을 받은 여러분이지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다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온전히 소화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요6:56) 하고 말씀하셨을 때, 듣는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살을 먹고, 인간의 피를 마시나?” 하고 논란이 일어나자, 주님은 그 말씀이 영에 관한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말씀은 올바르게 들으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지만, 잘못 들으면 큰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는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생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은총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신앙 운동은 시작이 미약해도 끝을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마라톤 경기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달려 누가 1등을 할지 알 수 없지만, 지구력을 갖고 끝까지 잘 달린 사람이 승리의 월계관을 머리에 쓰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는 어지러움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하여 욕도 많이 먹고 핍박도 많이 받았습시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릅니다. 우리는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역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큰 업적을 쌓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이나 행실에서 신앙인답게 겸손하고 남에게 본이 되어 용기와 힘을 줘야 합니다.

앞선 역사는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으나, 끝내는 비참하게 패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수보하는 우리 역사는 이와는 정반대로, 시작이 비참하여 험한 길을 걸어야 했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기초를 닦아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에 따라 모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 역사 안에서 가지로서의 본분을 다할 때, 시간이 흐르면 뜻 사람들의 아낌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알곡성전은 문자 그대로 영적으로 알곡이 여무는 성전입니다. **(계14:15 참조)** 쪽정이가 알곡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곳이 알곡성전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역사는 고도로 성숙한 역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수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앞선 역사였고, 또 우리 역사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마귀는 잠자코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마귀도 이에 못지않은 강력한 힘으로 가로막습니다. 앞선 역사가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그야말로 요원의 불길처럼 위력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도 만만치 않아 결국은 오늘날과 같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는 다시 떨치고 일어나야 하며,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다시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신앙이 투철하여 안팎으로 밀려오는 시련과 연단을 달게 받고 하나하나 이겨 나가는 신앙인이 될 때, 우리 역사는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입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 4별관을 지은 후부터 악령은 더욱 기승을 부려 갖가지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땀을 흘리면서 이뤄 나가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더한층 경각심을 갖고 악령을 물리쳐야 합니다.

Chapter 26.

바울 신학과 감람나무 신학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신앙이 마음의 기둥이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 생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많이 변천되고 또 양상을 달리해 왔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엡2:8)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분명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 후손 중에 메시아를 탄생시킨 것은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

고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굳이 알아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는 지금까지 2천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에 이르러 하늘에서 독특한 감람나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역사가 수포로 돌아가자 주께서 적이 당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 역사가 그 뒷수습을 위해 올해로 19년째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람나무 역사는 대단히 초라하여 거의 꺼져 가는 등불을 방불케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다 할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성서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슥4:10)고 하였지만, 실제로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여, 그 민족으로 당시에 우상을 가장 열심히 섬기는 가나안 민족을 쓸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 기간이 약 40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의도를 감추고, 400여 년 동안 당신의 백성을 길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며, 모세를 지도자로 내세워 이 선민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알지 못하여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삿2:20-21 참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작업을 계속 펼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 후,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활동해 오신 역사의 범위를 확장하여,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도(道)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큰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 수천 년 동안 이루어 가시던 작업을 수정하시는 과정에서 바울이 그 총대를 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일할 때에 부딪치는 어려운 광경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경륜을 펼쳐 나가셨습니다. 그 가장 큰 과제는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할례의 폐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수천 년 동안 시행하여 온 할례를 하루아침에 폐지시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할례의 폐지에 대해 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롱과 핍박이 뒤따랐습니다. 이해가 가는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 운운하니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할례를 폐지시키는 일은 종교를 떠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해체시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긍지와 자랑이 할례인데,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방치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나라를 소란케 하는 반역자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할례를 폐지시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법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기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국법을 뒤집어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단시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반국가적인 행위로 규탄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은 바울의 이런 고난을 벗어나게 하셨느냐?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고난을 로마에 가셔도 당할 것을 지시하셨던 것입니다.(행23:11)

이것을 우리 역사와 비교해 보면, 양상은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옥중에 있을 때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한적한 곳에 성전을 지어 내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옥중에서 혼자 추위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일을 내게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할례의 폐지를 주장할 때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할례를 폐지시킬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내막을 바울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갈1:11-12)는 바울의 말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천사가 와서 변경해도 저주를 면치 못할 것”(갈1:8)이라고 말했지만, 많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직접 알게 된 사람은 바울뿐이고,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책잡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날 욕먹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었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용기를 잃지 마라.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주님은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고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정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더러 계속 고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평생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윽고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의 주장이 조금씩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신학이 정착되어 갈 무렵에 하늘에서는 또 하나의 획기적인 일을 계획하였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긴자의 출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요한은 밧모 섬에 유배되어 있

었습니다. 이 요한에게 주님은 계시록을 기록할 것을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기독교의 터전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전 세계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하늘 높이 치솟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옛날에 바울이 시작할 당시의 기독교는 보잘것없고, 오늘날의 기독교는 크게 발전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기준으로 기독교를 볼 것이 아니라, 진리에 입각하여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내용을, 즉 주님의 의도를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시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의 궤도를 크게 변경하여 바울에게 지시하시고, 한편 이긴자의 출현을 요구하신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바울이 한 일을 이어받아 이긴자 역사라는 섭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세운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이긴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긴자가 예뻐서 세우고, 위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준행할 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정하지 않으시면 종이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바울의 교역에 뒤이어 이긴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연되고 지

연되어 오늘에 이르도록 바울의 신학에 의해 모든 신도들이 신앙 생활을 해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신학자들이 배출되었으나, 바울의 신학을 능가하는 신학을 내놓은 인물이 없었습니다. 만일 바울 다음에 이긴자가 바로 나타났더라면, 바울의 신학은 이긴자의 신학으로 대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긴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신학으로 2천 년 동안 기독교가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긴자가 나타난 것이 앞선 역사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신학 대신 감람나무의 체계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Chapter 27.

하나님의 뜻을 알라!



1) 출애굽의 배경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머리로 연구하여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야 할 일이 없다면 당신의 종을 내세워 그 백성에게 당신의 깊은 내막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시 출애굽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따라 율곡이 드리냈습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탄 신을 가장 잘 섬기는 민족과 장소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민족과 장소로 바꿔 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단일 민족을 형

성하여 당시에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애굽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좋은 점을 배워 출애굽 이후에 강대국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고도의 전략을 세우시고 적당한 시기에, 즉 4세기가 지나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나라가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굽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좋은 나라라야지, 그보다 못하면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기간도 며칠밖에 걸리지 않으니, 먹을 것은 며칠 분만 준비해 가지고 애굽에서 급히 나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를 주어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이론(異論)이 분분하여 지체되기 때문에 서둘러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빵도 ‘무교병’이라 하여 누룩을 넣지 않고 부랴부랴 만들게 하셨습니다. 피난도 그런 피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 미련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후에도 애굽 생활에 미련을 가질까 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하시고, 홍해가 앞길을 가로막았을 때 홍해를 갈라 하나님의 위력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을 과시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배후에 하나님의 이런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짐작인들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흘 정도면 젓과 꿀이 흐르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줄로 알고, 비교적 흥가분한 마음으로 애굽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나서부터 고생이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식량이 떨어져 굶게 되었습니다.(출 16:1-3) 그러자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 그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무작정 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거기에는 깊은 의도와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략을 지혜롭게 헤아려야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목적과 동기를 한마디로 요약해 말하면, 바알 신을 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최고의 공경을 받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도저히 묵과하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바알 신을 가장 정성스럽게 섬기는 민족이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지상에서 가나안 민족을 말살하려는 전략을 수백 년 전부터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공경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셨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여, 그들을 통해 당신을 공경하는 터전을 마련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는 모세의 지시를 따라야 하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더 쉬운 길을 가게 하시지 않나, 하고 ‘왜’를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출애굽에 대해 시작부터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민족도 그리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작업을 펼치신 것입니다. 즉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게 하고, 능력을 행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의 위력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의 명령에 거역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광야에 불편한 생활이 계속되자 그들은 말이 많았습니다. “애굽에서 그냥 살았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끌어냈나?” 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쳐부수고 당신을 공경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쓰신 하나의 도구였으며, 이 도구

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율법을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시는 데 필요한 규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단합하지 않고 서로 싸워 질서가 문란해지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지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합심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민족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백성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은 상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 뜻에 적응하면 좋지만,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자연히 이유가 많게 됩니다. 그리하여 거역합니다. 그들은 자기 판단이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거역하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2) 감람나무 역사의 배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여 가까이 하신 것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부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끌어 주시고, 합당치 않으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은 흔히 여러분의 생각대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일반교회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안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바알 신을 섬기던 원주민을 어린애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정사정없이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신7:2) 씨를 완전히 말려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잔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을 싹쓸이하시고, 그곳에 당신의 백성을 정착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중에 인정사정을 보아 일부를 살려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저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오늘날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람나무의 가지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은 이 영적 이스라엘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깨져 버린 것입

니다. 앞선 역사의 주인공이 예뻐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영수를 통해 귀한 은혜가 내리는 것도 이영수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이영수가 심부름꾼으로 쓰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심부름을 잘하면 인정을 받고, 잘못하면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잘났든 못났든 이 역사에 부름을 받아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눈여겨보십니다. 즉 당신이 원하시는 뜻에 얼마나 호응하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잘하면 주의 사랑을 받고, 잘못하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자상히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엉뚱뚱뚱 따라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고생이 되더라도, 잘했다 칭찬받는 양떼가 되게 하려고 말입니다.

우리 역사는 감람나무의 역사요, 이진자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망한 앞선 역사를 다시 복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를 양떼들에게 심는 것은 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옛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를 걸고 그들이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미쳐 들어가기 전부터 원망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멸망한 것입니다. 쓰려고 했지만 못 쓰게 되면 하늘에서는 버립니다.

앞선 역사가 깨진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꺾박하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인공을 옥에 잡아 가두고 두들겨 패도 하나님의 역사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 밖에 나면 하늘에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기독교도가 천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같다면 나 같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계획이 따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늘에서 여러분을 주의 종에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기 때문에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것은 큰 불찰인 동시에 엄청난 죄입니다. 다른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짓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는 그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헤아려 이에 적응하여 신앙을 지키는 양떼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내 뜻 가운데 거하며, 내가 필요로 하는 자를 만들어 다오.” 우리 역사는 이런 언약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을 이뤄야 합니다. 양떼들이 이것

을 목표로 좇아와야지,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나 많이 모이게 하면
소용없습니다. 이런 일은 내가 아니라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교
회가 수만 개 늘면 뭐 합니까? 문제는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 알곡으로 만들어지
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연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Chapter 28.

한 때, 두 때, 반 때에 대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요컨대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 이름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속속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주의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그 역사는 그들에게 거치는 반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반목회자들은 구원을 너무 쉽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쉽지 않은 것은 마귀가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해 주기 위해 다니엘에게 내려갈 때, 마귀가 가로막아 21일이나 지연된 사실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단10:12-13)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훼방합니다.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눅4:6)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인군자도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성인군자면 뭐 합니까?

계시록 첫머리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계1:3)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시행되기 전에는 주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이 시행될 때에는 지상에서 하신 말씀은 주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신 계시록의 말씀에 흡수됩니다. 마치 구약의 모든 위대한 말씀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흡수되는 것과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한 모든 율법과 강령은 세례 요한 때로 끝나는 것입니다.(마11:13)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주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대화하신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요4:7 이하 참조) 주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자, 그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알아보고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녀의 이 물음에 주님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전에는 율법에 의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 이유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인공이 왔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그건 메시아가 나타날 때의 일이 아닙니까? 혹시 당신이 메시아라는 말입니까?”, “네 말 그대로이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 선생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영적인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그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는 이러저러했지만, 앞으로는 이렇다, 하고 차츰 조심스럽게 모세의 율법을 밀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자의 귀가 열리지 않아 그게 되지 않으므로, 바울을 시켜 겨우 보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이긴자가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긴자가 나타나면 당신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관하여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

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단12:7)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에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보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알아듣기 쉽게 달리 표시하면, 달로 쳐서 42달, 날수로는 1,260일이 되며, 그것을 때로 표시한 것이 한 때, 두 때, 반 때입니다. 그러므로 한 때, 두 때, 반 때와 42달과 1,260일은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42달이라고 표시할 때의 상황과 1,260일이라고 표시할 때의 상황과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표시했을 때의 상황이 각각 다릅니다.

1,260일은 두 증거자에게 해당되는 시간관념이고, 42달은 성도들을 짓밟는 짐승에 해당되는 시간관념이고, 한 때, 두 때, 반 때는 마귀의 괴수인 용에게 해당되는 시간관념입니다. 자기가 불리해지면 한 때, 두 때, 반 때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단 7:25)

다니엘은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야 모든 일이 다 끝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여,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단12:8) 하고 물었더니,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단12:9)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유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주님을 대신하여 이걸 이렇

고, 저건 저렇다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긴자에게 ‘흰 돌’을 주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계2:17) 이 흰 돌은 주님을 상징합니다. 흰 돌을 준다는 것은 주의 몸을 맡긴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후, 영광의 주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행하게 되셨을 때쯤에는 지상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지상에서 하신 말씀으로 영적인 일을 다 처리하실 수 있으셨다면, 구태여 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시기 위해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어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의 경륜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상에 있을 때 하신 말씀으로는 예수를 믿는 자를 배출시킬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상에서 하신 말씀을 보완하실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막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님을 증거해도 지금까지 다른 목회자들은 이 땅에 계실 때의 주님을 증거하지만, 나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신 영광된 주님(히5:10)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하

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 같은 찬송가로 증거하는 데도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Chapter 29.

솔로몬 성전과 알곡성전



오늘날 일반인들은 알곡성전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것을 보고 단지 건물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건축물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손길이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과 시일이 지나야 했습니다. 다윗이 자재를 마련한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신 성전이면, 영광 중에 몸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겠습니까?(왕상9:2, 대하7:12) 그때까지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마땅한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구를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님께서 계실 장소를 최초로 마련한 것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가만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왕하24:13)

그 후에 재건한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셔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성전세를 내야 하니 돈을 주십시오.” 참으로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신의 집인데도, 인정을 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그 성전의 주인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인이 왔는데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가 막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이 성전이 누구의 집이나?”

“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고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냐?”

“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데 돈을 내야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 어쩍니까? 그래서 주님도 성전세를 내셨습니다.(마17:27)

주님은 성전 뜰에 장사꾼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내어 쫓고 환전상의 상을 집어서 동댕이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성전이요, 당신의 집이지만, 남들이 인정하지 않으니 한바탕

소란을 부리고 부랴부랴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아시지만,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 끝내는 성전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된다고 저주를 내리셨습니다.(마24:2) 그 후 40년이 지나 로마군이 성전을 헐고 대리석을 모두 로마로 실어 갔습니다.

오늘날 얼마 안 되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 하여 이 알곡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는 여느 교회의 마룻바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경우에는 그 공사의 성공 여부가 하나님의 역사를 좌우합니다.

여러분은 이 알곡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악의 세력과의 다툼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이곳을 향해 계속해서 집중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담으로 지켜 주시니 망정이지, 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성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투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알곡성전에 이렇게 엄청난 부대시설을 짓는다는 것을 미리 말했더라면, 아마 한 사람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도 가지 않았을 것이고, 두려움에 질려 “그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해.” 하고 뒷걸음을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공사를 단계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처음에 윤곽을 대충 보여 주신 다음에 하나가 완성되면 다음 것을 지시하여 차례로 지어 나가

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 주신 스포츠 센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육적으로는 건물을 짓는 일 같지만, 영적으로는 전쟁입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갈 때 마귀는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가만있지 않습니다. 가로막으려고 인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서 정신 무장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마귀에게는 우리만한 도전자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천만 인은 무서워하지 않지만, 한 사람이라도 이 성전 안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무서워합니다. 왜냐? 자기에게 적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상대가 한 사람이라도 배출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긴자는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소위 ‘휴거’라 하여,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고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늘 군병을 배출시켜야 합니다.(계 6:11) 성서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계17:14) 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없는데도 이긴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 빼내심을 얻고 진실해진 다음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기는 겁니까?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것을 신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 신의 힘을 가진 자가 이긴자입니다. 이긴자가 마귀를 이길 자들을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귀를 이기는 힘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이곳 알곡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Chapter 30.

우리의 갈 길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조주를 믿게 하는 종교 운동은 복음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귀를 쳐부술 때에는 믿기만 하는 그 숫자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정한 수의 하늘 군병이 배출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 신앙 운동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믿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상대하여 싸워야 할 경우에는 하나님과 주님만 알고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러 나가는 하늘 군병이 되려면 우선 마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무찌르지 못하면 하늘

군병의 자격이 없고, 하늘 군병이라고 하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다면 하늘 군병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소굴에서도 사로잡히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군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는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해도 살아갈 수 있으나, 마귀와 싸우는 군대는 약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군대는 강해야 합니다. 즉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해야 합니다.

마귀를 멸망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만한 영적인 자격자가 되어야 비로소 마귀를 멸망시킬 수 있는데, 그런 자격자가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기를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시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총을 메게 하여 전장에 내보내 봤자 적을 향해 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나갈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비로소 무기를 맡겨 전장에 내보냅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시대 같으면 전쟁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체계니 연단이니 다 접어 두고,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기를 갖고 마귀와 싸워야 하는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기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려면 마귀가 어떤 계교를 부리고 갖은 장난을 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마귀와 싸우라고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늘 군병은 하나님을 믿는 데 그치

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대신하여 마귀와 싸우는 군병들입니다.

하늘 군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시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고차원의 신앙 체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마귀를 상대하는 무기입니다. 그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빛입니다.

그럼 마귀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어둠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원자폭탄, 미사일, 탱크 등으로 싸우지만, 마귀는 어둠으로 싸웁니다. 어둠을 인간에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어둠이 휩싸게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면 영이 어두워집니다. 빛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시면 여러분의 영이 밝아집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안찰을 하면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마귀가 여러분을 죄로 시꺼멓게 만든 것을 빛으로 씻어 냅니다.

마귀가 에덴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빼앗은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추방하고 에덴동산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였습니다.(창3:24) 이 화염검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빛입니다. 아담, 하와는 마귀의 지배를 받아 어둠의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두려워 에덴동산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을 때에는 빛의 존재였습니다. 쫓겨날 때에도 빛을 갖고 쫓겨났으면 빛으로 지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같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가

쫓겨난 후에 생명과일을 따먹으러 에덴동산에 들어올까 봐 빛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담, 하와는 이미 어둠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의 하나님의 종들은 음부를 땅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상 중에 음부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상 중에 자세히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종이 마귀를 상대하여 싸울 수 있는 하늘 군병을 배출시키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과 주님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으나, 마귀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마귀와 정면으로 대결하여 무찌르는 하늘 군병을 배출시키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전쟁할 때 후방 사람들에게는 적의 동태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나라만 최고이고, 적의 장점에 대해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적과 싸워야 하는 군병에게는 적의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 줍니다. 적의 동태를 숨기고 쳐들어가라고 명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적의 주력 부대가 있고, 어디에 지뢰가 묻혀 있고, 어디에 함정이 있다는 것 등을 소상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마귀를 상대하여 전쟁을 하고 작전을 세우는 주의 종이 있다면 주님은 마귀의 정체에 대해 소상히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뿔은 일곱이고, (5:6) 짐승의 뿔은 열 개(17:7)로 되어 있습니다. 뿔은 전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짐승이 강

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뿔을 보완해야 합니다. 보완하여 네 개를 더하거나 다섯 개를 더 하여 11개나 12개가 되어야 상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내는 마귀를 소탕하게 되지만, 양자의 싸움에서 전력상 이런 기복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세하시다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해도, 그 권세가 악령에게 넘어가면 지배권을 마귀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눈에 십자가가 새까맣게 변하여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영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올라가던 제사를 탄 세력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도 내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 인간은 모릅니다. 영의 문제란 이런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마흔 두 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고 했습니다.(계11:2) 그때의 영광은 누가 받았겠습니까? 마귀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선다고 했습니다.(단11:31) 가령 A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잘못되어 어둠이 지배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어차피 빼앗기는 것이므로 파괴해 버립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경우

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잡신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배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겠다고 쓸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회복할 기회를 주십시오고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때 만일 쓸어버리셨다면 여러분은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드리는 제사와 앞선 역사에서 은혜 받은 자들이 지금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는 종류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연결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은 다른 지배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난들 이런 깊은 영적인 내막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도 주께서 소상히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것입니다.



(재)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Part 04.

승리의 개가를 울릴 때까지



31. 이긴자와 네 생물 · 32. 마귀를 대적하라 · 33.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 34. “임금의 귀는 당나귀 귀!” · 35. 계시록의 두 여인에 대하여 · 36. “내 팔을 들어 달라!” · 37. 하나님의 역사와 전략 · 38. 선한 싸움에 동참하라 · 39. ‘흰 돌’의 역할 · 40.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자!

Chapter 31.

이긴자와 네 생물



인간은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사모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지난 날에 한 증거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심지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입니다. 이들 훌륭한 신앙인들의 발자취를 대할 때에는 숙연해지는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알곡성전을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성지인 원주의 천주교 성당에 견주어 말씀하신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이 남긴 발자취를 기억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순교자의 성지와 관련시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 둬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멸망한 고사(故事)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무서운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이 어떤 자세로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발자취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 알곡을 만드는 역사에 부름을 받아 이곳에 모였습니다. 즉 영적 알곡이 되는 경기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경기장에서 알곡이 되지 못하면 썩정으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냉철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구약 시대의 사역을 신약 시대의 그것으로 바꿔 놓은 하나님의 종은 이방 사도인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지시에 따라 할례를 폐지시키고, 모세의 율법을 자유의 율법으로 대치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으로 천주교와 개신교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는 신부의 위치에서 인위적이고 형식적인 당시의 잘못된 사제 제도를 바로잡아 기독교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을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앞장서서 그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 운동은 양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개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훌륭한 역사이고, 적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초라한 역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랑하는 제자 열두 명을 데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날 세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을 아무도 우러러보지 않았습니다. 말

하는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고, 듣는 사람은 주로 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글자 그대로 진리였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를 영적으로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위대한 권력가나 훌륭한 학자가 한 말은 오늘날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어떤 육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관상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도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방안을 조화(造花)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잘 꾸며 놓아도 거기서는 향기가 풍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송이의 백합꽃을 그 방에 갖다 놓아 두면 향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종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는 양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질적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신 것은 그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양적으로 양떼들을 크게 부흥시킨 목회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수주의적인 신앙인에게 혁신적인 신앙 운동은 거부감부터 안겨 줍니다.

계시록에는 일곱 인, 일곱 영, 일곱 눈 등, 일곱이라는 수가 많이 나오고, 또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계13:18)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일곱과 여섯은 각각 하나님과 마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을 7수로 표시하고 마귀를 6수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니.”(계6:1) 이 네 생물은, 전에 내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네 천사장을 가리킵니다. 이 네 천사장 중에는 축복을 주는 가브리엘 천사장과 전쟁을 주관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천사장은 성전을 주관하는 천사장과 제단을 주관하는 천사장입니다. 이 네 천사장을 성경에서는 네 생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계6:2)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활은 무기를 가리키고, 면류관은 영광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첫째 인을 떼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연고로, 하나님을 곁에서 돕던 네 생물들이 주님을 도우려고 주님의 곁에 옵니다.(계5:8) 그런데 주님은 이긴자가 나타나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를 내 보좌에 앉게 한다.”(계3:21)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긴자가 되든 그 자리에 앉는 권세를 갖게 되며, 주님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네 생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 온 것처럼, 자동적으로 네 생물은 이긴자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생물은 주님이 이기신 다음에 하나님을 대행하는 주님께

게 넘어가듯이, 이긴자가 나타나면 주님을 대항하는 이긴자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자가 나타나면 사전에 네 생물에 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계3:5)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왕자가 왕위에 오르는 데도 격식이 필요합니다. 대관식을 올리고 문무백관이 한자리에 모여 경축해야 임금의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 인정하는 주의 종은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누구다 하고 나서는 자들이 많지만, 그것이 곧 거짓인 것으로 들통 나는 것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는 10만, 20만이 모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부르는데도 와야 할 것이 오지 않고, 이곳에는 얼마 모이지 않았는데도 그것이 오는 것은 이 네 생물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은 중간에 천사의 도움이 없이는 올 수 없습니다. 이긴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네 생물이 주님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직접 부르는 사람에게 주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네 생물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네 생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네 생물이 이긴자에게 넘어올 때에는 이긴자를 통하지 않은 네 생물의 활동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체계가 서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성경 말씀에서 인을 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

정하신 계획을 시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면류관을 쓴 자가 백마를 타고 싸우는 장면입니다. 이 면류관은 이긴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존재가 먼저 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등장하면 네 생물은 그 존재에게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가든, 영국에 가든, 아니 달나라에 가 있더라도 이 네 생물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네 생물은 무수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네 생물의 시야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하늘에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설사 기억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네 생물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구름 떼처럼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데도 내리지 않는 은혜가 한 명이 모였든 두 명이 모였든 이긴자가 움직이는 곳에 내리는 것은 이 네 생물의 중간 역할에서 비롯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자주 인용하지만,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속4:6) 이것은 육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계2:11)라는 단서가 붙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앙의 운동이 일반 교회의 부흥 운동과는 양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며, 또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차원의

체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체계가 서야 주의 종의 가르침을 귀담아듣고 거기 순응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다른 보혜사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16:8)는 성서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안 되면 성경은 하나의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생수의 성령은 오늘날 이진자를 통하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진자를 제대로 알고 따르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이진자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납득했다고 해서 순교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함께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 죽겠는데 이론적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론을 앞세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면 그때까지 막혔던 것이 터지면서 귀가 열려, 내 말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감동을 느끼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만 옳은 줄 알고 자꾸만 따지게 되면, 모든 것이 마음에 부딪혀 신앙이 뒷걸음질을 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종교의 성패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준행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선 역사가 요원의 불길같이 일

어났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모여든 신도들의 수도 많고, 돈도 많고, 또 열성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과적으로 “내게 이득을 준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잘 보이지 않으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은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인용한 성경 말씀에 “말 탄 자가 활을 갖고 나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싸우는 상대가 없습니까? 상대가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쟁이들은 상대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려면 이길 수 있는 군병이 필요합니다. 하늘 군병 말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걸 배출시키는 것이 이긴자입니다. 일방통행으로 믿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자가 100만이 모이면 뭐 합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저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는 역사 속에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두에 선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면, 따르는 자들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명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일처럼 쳐다만 보면 뒤떨어집니다. 근본 이치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 군병으로 꾸준히 정신 무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Chapter 32.

마귀를 대적하라



영의 문제는 참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도전자에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곳에서 한 발짝만 밖에 나가도 모두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만사형통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주의 종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주님은 만사형통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되어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나서야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나, 하고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역사는 끌여가는 나도 어렵고, 따르는 여러분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인간들이 대홍수로 멸망하는 비참한 광경을 보셨겠습니까?(창6:7) 그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려고 인간힘을 쓰시다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다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주님의 가장 큰 권한이었습니다. 만일 주님에게 이 권한이 없다면 우리가 주를 믿어도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진작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던들 주님은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생전에 남 못지않게 하나님과 교류한 종이었지만,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시 16:10)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의 영혼도 건지지 못하시는 것입니다.(마27:52-53 참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앞으로 펼쳐질 영의 세계에 대해 사도 요한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여러 교회에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계1:11)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서의 영광된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곁돌기가 일쑤입니다. 나도 모르고 있다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알게 된 후에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앞선 역사에서 주님은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쁘고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적에게 당하시는 괴로움을 없애 줄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귀가 주님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 주었는데, 너희는 나를 조금도 기쁘게 하지 못했다. 나는 괴롭히는 마귀와 싸우라고 은혜를 부어 주었는데 너희는 마귀를 피했다.”고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귀가 주님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 드려야 주님을 위하는 겁니다. 다 피해 버리고 마귀가 주님을 괴롭히도록 가만 놔두면 주님을 돕는 겁니까?

이긴자가 나타나면 주께서 권한을 그에게 맡기시므로(계2:17, 26-27 참조) 마귀는 그를 향해 총공세를 펴게 됩니다. 그게 무너지니 그 도전이 다시 주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막아 주던 존재가 거꾸로 마귀와 합세하여 도전해 오니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피권세입니다. 기독교는 피권세가 빠지면 그림의 떡과 같이 됩니다. 지금부터 18년 전에 “그가 내 피를 짓밟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앞선 종이 걸보기에 문제가 없고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주님의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피를 짓밟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의 이긴자 감람나무를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처럼 빈틈이 없습니다. 마귀가 주의 종에게 쳐들어올 때, 주께서 “입으로 기운을 불어 막아라.” 하시기에 기운을 불었더니 물러갔다는 것을 전에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피권세를 맡은 자를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반교회의 신앙 운동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음녀입니다. 이 음녀가 2천 년 전부터 용에게 모든 영광이 올라가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때가 되면 밝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직접 도전할 정도이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세력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위하여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는 세력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4:7)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를 피하는 자가 100만이 모이면 뭐 합니까?

우리는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어야 합니다.

청량리에서부터 저를 따르는 양떼들은 많은 고생을 했고, 지금도 여러분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고생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 역사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심으로 이렇게 건설되어 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통해 은혜 받으려고 오신 분들입니다. 이것을 휘방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서 안찰을 받고,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주의 종은 악의 세력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1년에 서너 번 안찰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의 세력의 침범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몇 달에 한 번씩 안찰로 소멸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생수를 마시고, 이긴자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Chapter 33.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인간과 인간이 서로 의논을 하는 것은 이해도 하고 납득도 하지만,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신은 신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우리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신을 보지 못합니다.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의 힘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보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교를 3대 종교라고 부르고, 이 3대 종교가 세계의 종교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구미 여러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신봉하며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상당히 왕성하게 전파되어 있고, 동남아와 일본 등지에는 불교가, 그리고 중동 지역은 회교가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즈음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어서, 입후보자들이 저마다 당선의 고지를 향해 선거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치열한 논쟁을 전개합니다. 그러나 신들의 대결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라이벌이 생기면 불을 뿜는 대결로 번지게 됩니다. 이긴자는 마귀와 맞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느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어 10만이 모였다, 100만이 모였다 해 봐야 마귀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면 마귀는 태도가 180도로 돌변합니다. 즉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여 공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쪽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여건을 조성하여 강력한 힘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이처럼 맞수를 상대하는 어떤 종교 운동이 일어날 때에 일반 종교 운동과 비교하여, 거기서 이렇게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주장한다면 이걸 통하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훌륭하고 방법이 좋다고 해도 그것은 마귀가 도전하지 않을 때의 이야기지, 마귀와 정면으로 부딪혀 전쟁하는 마당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2천 년 동안 주관해 오시다가, 고대하시던 이긴자 감람 나무가 나타나자 당신의 피권세를 맡겨 역사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체계가 섰기 때문에 조금씩 밝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이것을 알게 되어 천만 다행이지만, 때로는 알게 되어 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르고 믿으면 속 편할 텐데 ‘식자우환’이라고, 알고 나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역시 알 건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믿으면 당장은 행복하고 만족스럽지만, 결과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째서 오늘날에야 알게 되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가 마귀와 정면으로 싸우는 시점에 이르러, 주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긴자가 하는 전쟁은 영의 전쟁입니다. 이긴자는 적의 대가리를 쳐부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리를 꺾으면 그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항복하게 마련입니다. 성경에 이긴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준다.”(계2:26-27)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세계를 포함하여 인간 전체, 따라서 종교도, 사상도 손아귀에 넣어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눈에 보이게 수백만, 수천만 교인을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걸 누가 지혜가 있어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역사를 이뤄야 하는 사명을 맡은 자에게 주님이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내막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신은 신으로 이겨야 합니다. 절대로 사

람의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 이기지 못하는 것을 신이, 즉 성령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역사하는 이긴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압니까? 마귀와 전쟁하는 무기로 쓰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인간은 100억이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 하와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마귀가 아담, 하와를 비롯하여 그 후손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배권에서 벗어나 마귀에게 도전할 힘을 가진 인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군병의 수가 후다닥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론이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또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으로도 안 됩니다. 그게 된다면 이긴자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 10억의 기독교도가 어둠의 지배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뭘 갖고 이길 겁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주님을 따를 때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는 마귀를 작살내는 역사입니다. 그것을 작살내지 않는 한, 대결 상태는 계속되며, 계시록은 이것을 논한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온다고 하였습니다.(계11:7) 그 짐승에게 마귀의 괴수, 즉 용이 모든 권세를 맡깁니

다.(계13:4) 이긴자는 저 아래서 문어 다리처럼 복작거리는 무당이나 술객 나부랭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괴수와 싸우는 것입니다. 신도의 숫자나 늘어 천여 만 기독교도를 자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다른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감람나무의 가지들입니다. 그러니 따르는 양떼들이 어떻게 하루 이틀에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혼자서 알고 나온 주의 종이라면, 일반교회의 목회자들처럼 안이하게 생각할 처지가 못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궁지에 몰려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렸다. 이제 너는 나를 위해 일해 나오. 그러면 이런 저런 것을 주겠다.” 이런 언약을 받고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지상을 다스리는 조건이 오늘날처럼 불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역대에 전무후무(前無後無)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 종이 맡아서 지금 많이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로 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을 깊이 이해하여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주의 종은 영적인 깊은 말씀을 계속 해서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마련되어야, 여러분에게 더욱 깊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몇 달만 이긴자의 손길과 입김이 여러분과 같이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맥을 못 춥니다. 첫째 힘이 나지 않습니다. 몇 달만 주의 종이 다른 데 가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러분을 마귀가 손 못 대는 것은 이긴자가 지켜 주기 때문입니다. 1년에 서너 번 안찰을 받으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범접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가 이런 차원에서 하나하나 이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도 선지자를 가까이하시다가 죽으면 음부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마27:52 참조) 내가 근래에 터뜨리고 있지만, 이 사실을 일찍이 기독교 역사상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님 앞에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사실을 밝혀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권세로 그들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긴자는 그 피권세를 물려받아 여러분이 음부에 가기 전에 건지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세마포를 입혀 주면(계19:8 참조)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주의 종의 슬하에서 주의 종과 얼마나 호흡이 맞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에 부름을 받아 저마다 자기 나름으로 충성하느라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충성의 열매가 하나하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역사를 시작한 지도 벌써 2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여러분과 고락을 함께 하는 가운데 같이 웃고 또 울고 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겪어 봐서 잘 알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역사밖에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도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hapter 34.

“임금의 귀는 당나귀 귀!”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존재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 대하여는 이건 이렇고 그건 그렇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것은 그 크기나 형태나 세력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의문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과학이 크게 발달하여 달을 정복했습니다. 달을 정복하기 전에는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달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때로는 절도 하고 고사도 지냈습니다. 달은 미지의 세계라, 사람들이 경외감을 느끼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러나 달이 인류에게 정복당하자, 그것은 신비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천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에 대한 신비감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많은 이적과 기사도 행하였습니다. 그는 이처럼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그 신비로움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 할수록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께 “제게 하나님을 직접 좀 보여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네가 나 여호와를 보는 날에는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출33:18-20)

하나님의 정체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존경심은 모르고 있을 때와는 판이합니다. 다 알게 되면 신비감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정체를 인간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위에 언제나 군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을 다스리면서 당신을 베일 속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역대의 하나님의 종들치고 이상 중에라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에게 미지수(未知數)를 남겨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처지를 알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알리고 싶어서

알린다면 별문제인데, 어쩔 수 없이 알려야 할 경우에는 알려 준 상대방에게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귀가 당나귀처럼 빠죽한 임금은 머리를 깎아야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이발사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임금은 자기의 흉한 귀를 보여 주지 않으면 안 될 현실을 맞이했기 때문에 보여 주는 것입니다. 천한 이발사에게 자기의 당나귀 귀를 보여 주고 싶은 임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머리를 깎기 위해서는 부득불 보여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발사는 국무총리도 보지 못하는 임금의 귀를 보게 됩니다. 임금은 국무총리나 그 밖의 문무백관들에게는 자기의 신체적인 약점을 숨길 수 있어도, 이발사에게는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여건을 말하게 되면, 세상의 권위 있는 신학자들은 대뜸 “네까짓 것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근황을 안다고 하느냐?” 하고 대들 것입니다. 세상에 육적으로 볼 때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근황 운운하면 곧이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발사가 임금의 머리를 깎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임금의 당나귀 귀를 보게 된 것처럼, 이긴자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깊은 사정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은 자기 귀를 이발사에게 보여 주고 나서 “네가 만일 내 귀가 이렇게 생긴 것을 남에게 발설하는 날에는 너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게 됩니다. 만일 이발사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발설하면, 임금은 존경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큰 사명을 맡은 종에게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당신의 근황을 알려 주시고 그에게 당부하십니다. “너만 알아라.” 하고 말입니다. 내가 여러 해 전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만 알아라’는 당부가 계셨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은 유일신(唯一神)이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것으로 통해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당신을 전지전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 풍토 속에서 존경을 받고 계신데, 당신이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간에게 밝히고 싶으실까요? 밝히고 싶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밝혀야 합니다. 그리하여 몰랐던 내막을 알게 되면, “너만 알고 있으라.”는 당부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알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자랑스러운 이야기일까요? 자랑스럽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약속된 감람나무 이긴자의 역사에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감람나무 시대가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미리 세워 놓았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그 일을 맡은 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을 시키려니까 어쩔 수 없이 당사자에게 사실을 말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긴자 감람나무는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을 밝히셔야 할까요? 성경 66권에 역대 하나님의 종들이 각자 맡은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중에서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사정을 말씀하지 않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 이긴자의 역사는 오늘날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앞선 역사가 그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종교 운동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즉 무엄하게도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짓밟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도탄에 빠진 것입니다. 당나귀 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알리고 싶으실까요? 알리고 싶으실 리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얼굴을 보여 주십사 하고 간청해도 보여 주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당신께서 궁지에 몰린 그런 엄청난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신 그 당사자에게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시작한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 운동이 하나님을 무조건 전지전능하다고만 생각하고 믿는 신앙 운동과 같을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따르는 자들은 주의 종

이 어떤 여건 속에서 주의 일을 하는지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의 종과 호흡을 맞출 수 없습니다.

주께서 전에 저에게 어떤 부탁을 하실 때 “너만 알라.”고 당부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부탁이란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인간에게 부탁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탁은 자기가 할 수 없을 때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네가 좀 해 다오.”—이럴 때에 부탁하게 되는 것이지, 할 수 있는 일은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부탁 받은 사람이 이루지 못하면, 그 부탁은 허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날 남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일을 해 나가고 있지만, 그 일 자체를 주께서 부탁하셨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주께서 그 일을 맡은 자에게 “너만 알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내용은 비밀입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가 여건이 이러저러하니 너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역사라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큰 어려움도 내포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부탁은 주님이 하셨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은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주의 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의 어려운 조건을 알지 못합니다. 주의 종이 그것을 혼자 가슴에 품고 그 어려움을 보완해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르는 사람도 그런 속사정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탁 받은 것이 뭐냐? 일반교회처럼 예수나 잘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어려운 조건을 어렵지 않게 되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이런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가면서 도움을 드려 하늘의 큰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Chapter 35.

계시록의 두 여인에 대하여



계시록에 보면 ‘여자’라는 말이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음녀의 역할을 하는 여자이고, 또 하나는 아들을 낳는 역할을 하는 여자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두 여자는 서로 최대의 적이자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양자 사이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당신에게 필요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적과의 싸움에 군병으로 쓰이기 위해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물음에 대

해 분명한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군병이 되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인간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군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적에게 이로운 존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기는커녕 천히 여기고 미워하십니다. 이것을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꾀에 빠져 범죄한 아담,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당장에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따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에덴성회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이 역사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시하시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군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에 따라 움직이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많은 물위에 앉은 음녀’(계17:1)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음녀가 세상을 음란한 것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어디나 잘 스며듭니다. 그리하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이 음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계17:15) 오늘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바로 이 음녀입니다.

계시록에는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은 주의 신부, 곧 14만 4천의 군병으로 이루어집니다.(계21:10) 이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의 존재를 등장시키게 되면, 마귀가 이 여자를 몹시 괴롭힙니다. 그래서 여자가 도망을 쳐서 광야로 피신하여 1,260일, 즉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 받는다는 것은 마귀와 싸울 힘을 보충한다는 뜻입니다.

이 여자가 낳는 아들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마 1:23)는 말씀이 있는데, 이 아들은 육적인 아들을 뜻합니다. 육적인 아들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지만, 영적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계12:5)라고 했습니다. 이 ‘남자’는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낳은 아들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낳은 아들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사53:7) 영적으로 낳은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입니다.(시2:9)

그럼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면 이미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아들을 배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다스릴 만국에는 마귀의 세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스리지 못하는 분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질 때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말씀이 응해지는 것입니다. 이 여건을 만들어 놓는 존재가 바로 또 다른 여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성경에 풀이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인간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는 중보의 역할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됐지, 또 무슨 아들이 필요하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 아들을 성경에는 영적으로 여자가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즉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미가엘 천사장과 그 사자들입니다.(계12:7) 이들이 마귀의 괴수인 용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용이 이기지 못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용이 만일 이겼으면 하나님께 도전하였을 것입니다. 이 용을 성경에는 “옛 뱀 곧 마귀”(계12:9)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용이 땅으로 쫓겨나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낳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내어 쫓긴 것이 아들을 낳은 여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큰 성’ 곧 ‘거룩한 성,’(마27:53, 계21:2) 즉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을 뜻합니다. 이 수가 차면 주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조건이 마련됩니다. 이것을 계시록에는 아들을 낳는다고 영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은 여자는 용의 세력에 밀려 작전상 광야에 후퇴하여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전력을 보강하며, 그 기간은 지상의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계12:6) 이때 창세 이후로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면, 모두 마귀에게 굴복하게 됩니다.(계13:8) 그래서 여러분이 세마포를(계19:8) 입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음부에 가서 기다리게 됩니다.

처음에 오신 아들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는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무지무지하게 당하셨습니다. 뺨을 때리면 맞아야 하고, 십자가에 매달면 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들은 다릅니다.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철장이 뭘니까? 박살을 내는 도구입니다. 그런 아들이 배출될 때에는 상대를 박살내는 겁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하늘에서 밤낮 하나님을 참소하던 존재, 즉 하나님을 괴롭히던 악의 세력이 차단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모든 움직임은 아기를 배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

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의 자격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마리아가 혼자서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눅1:35)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아기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는 혼자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주님이 같이하십니다. 앞선 역사에서 그 주인공을 영적인 어머니라는 뜻에서 ‘영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당시에 한동안은 주께서 주신 피권세로 그런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성서에 여자도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야 하늘 군병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계14:4)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음녀’로, 여러분을 세상으로 끌어내고, 이 역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배후에서 조종하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이 음녀는 짐승과 마찬가지로 그 괴수인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활약하는데, 이것은 주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움직이는 것과 양상이 같습니다. 이처럼 권세에는 각각 배후에 조정자가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쪽은 용입니다. 그리하여 그 슬하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영적으로는 자연히 서로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두머리가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따라가는 자를 원수로 여기시고, 마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를 원수로 여깁니다. 인간 대 인간 사이에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영적으로는 원수가 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의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후에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데 앞장섰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 자기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죄인 중의 괴수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말입니다.

오늘날 온 세상을 지배하는 물위에 앉은 음녀와 아들을 배출시키는 여자가 다투고 있습니다. 아들을 배출시키는 여자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음녀의 뒤에는 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은 지금 아들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하루아침에 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를 잉태했을 때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게 되면, 아기 엄마가 몸을 움직이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비슷하여 내용적으로 이루어져 나갈수록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엄마가 가장 힘든 것은 역시 해산할 때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계12:4)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용은 음녀에게 권세를 주어 역사합니다. 아이를 해산하게 되면 물위에 앉은 음녀는 그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물, 즉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의 세력이 밀어닥치게 되는 것입니다.(계12:15 참조) 이런 영적인 내

용은 백 번 읽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어제 텔레비전에서 나바론이라는 영화가 방영되었는데,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독일군의 대포가 장치된 나바론 요새가 나옵니다. 그 앞에 있는 연합군의 보급로는 모두 작살이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이 요새를 쳐 부숴야겠는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요새가 워낙 큰 바윗덩어리의 깊은 곳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포로 쏘아도 끄떡없고, 비행기로 폭격해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특공대를 조직하여 폭탄을 안고, 그 요새에 잠입하여 폭파시켰습니다. 이들 몇 명 안 되는 특공대원들은 목숨을 바치고 싸웠던 것입니다.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하는 일반 군병이 아무리 많아도, 몇 안 되는 이들을 당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 역사에 들어온 여러분들을 이룰테면 이런 특공대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용이라고 하니까 사나운 큰 뱀 정도로 알기 쉬운데, 사실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용이 머리가 일곱 개이고 뿔이 열 개이며, 그 여러 머리에는 일곱 개의 면류관이 씌워 있다고 했습니다.(계12:3) 이것은 요컨대 용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용은 짐승, 음녀, 줄개 마귀 등 막강한 세력을 휘하에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엇이 자기의 배후에서 지배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전 세계에서 십자가를 달아 놓고 ‘예수여, 예수여’ 하고 부르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위에서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치 6.25때 서울을 공산당이 지배해도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구멍가게에 가서 과자를 사 먹기는 매일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주께서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구나,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 하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런 영의 문제를 헤아려 이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하늘에서는 여러분이 주의 종을 어떻게 보는가를 살피십니다. 왜? 여러분이 나를 주의 종으로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이 내게 하신 지시가 응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보시는 것은 물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오늘날 저를 붙들고 계신 것도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뜻이 있어서 저를 도와주시는 거지, 뜻이 없다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또 그 뜻이 없다면 저도 하지도 않고, 힘들어서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쉽게 예수를 믿고 부흥도 많이 시키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을 가는 것은 주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고생스러워도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에 몸을 담고 하는 작업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배출시키는

움직임을 마귀는 눈엣가시처럼 싫어합니다. 마귀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작업을 가로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자기에겐 치명상을 주는 상대방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작살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달림을 당하고 미움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Chapter 36.

“내 팔을 들어 달라!”



하나님께서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미리 단편적으로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단편적으로 예언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메시아의 전모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춰둔 것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예언만 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의도를 분명히 알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적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마귀입니다.

주님은 지상에 오신 목적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20:28)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2차적인 목적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늘 군병이 되게 하여 적을 완전히 소탕하는 것입니다.(요일3:8) 이때 비로소 대속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와 일반교회가 다른 것은 이 하나님의 적에 대해 갖는 투철한 인식입니다. 즉 일반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위주로 신앙을 지켜 나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를 무찌르는 군병이 되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앞선 역사에서 교역자 생활을 할 때에는 악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감람나무에게 주신 능력으로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믿으면 만사 오케이로 승부가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서는 신앙관(信仰觀)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주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는 열심히 믿고 진실하게 살면 그만인 줄로 알았으나, 주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직접 들은 후에야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고, 주님도 때가 되면 따르는 양떼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간히 조금씩 밝히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종교 운동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지시하여 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역사에 대해 예언한 것은 구약 시대에는 스가랴와 선지자 호세아이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주의 종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깊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계 1:3)라는 그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야 합니다. 주께서 이미 그것을 여러분에게 단계적으로 밝히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앞으로 너를 따르는 사람의 수가 이렇게 늘고 예배를 이렇게 보게 될 때에는 깊은 내용을 서서히 밝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따르는 양떼들이 어느 정도로 체계가 섰다’, 하고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쯤 보여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그 보여 주신 대로 말씀을 조심스럽게 터뜨리는 것입니다. 저번에 일산 교회의 기념예배 때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처음에 여러분이 저를 따를 때에는 이상 중에 거의 다 기어오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중에는 절뚝거리는 사람도 있고,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따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 얼마가 지나서는 뛰어오고, 근래에는 날아오는—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천천히—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그동안에 성장해 온 과정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것과 기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소상히 아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계1:7)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마10:23) 이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님께 그릴 만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시기 싫어서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시게 하는 조건이 지상에 마련돼야 합니다. 계시록 2, 3장의 말씀 그대로, 지상에서 주의 피권세로 재림을 이루는 이긴자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긴자가 누가 됐든, 김 아무개가 됐든, 박 아무개가 됐든, 그가 영적 싸움에서 사령관이 됩니다. 그는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선 자'(눅4:14)로 기독교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앞선 역사에서도 '교회의 완성자'니, '기독교를 마무리 짓는 종'이니 하고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존재가 영적으로 적과 싸울 때, 그 대표자가 지면 기독교 자체가 상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세상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이긴 쪽에게 지배권이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감람나무가 대한민국에서 나왔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그는 온 세계 기독교의 감람나무입니다. 일본에서 나와도 그렇고, 미국에서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감람나무가 나타났으면, 그 감람나무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꺾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행복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이 신의 조건입니다.

주님은 앞선 역사에 불러 모은 9만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낌없는 은총을 내려, 그들이 하늘 군병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주님을 위해 하늘 군병이 되어야 했는데, 거꾸로 주님을 대항하는 역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곳에 사람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을 마귀가 가로막지만, 주님은 천사를 시켜서 오게 만드십니다. 제가 유리해지라고 그러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주께서 원하시는 여건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저를 통해 당신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나를 주의 종으로 믿게끔 하기 위해 주께서 애쓰시는 것은 이 때 문입니다. 주님은 전에도 이렇게 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나를 위해서입니까? 대답은 뻔한 것입니다.

아니 할 말로, 내가 만일 앞선 역사의 주인공처럼 무너지면, 주의 역사는 완전히 매장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내가 뒤를 이어 하나하나 세워 나가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체계가 서 가고, 보혈의 은총 속에서 영적으로 생명이 익어가니 망정이지, 주님은 지상에 기댈 곳이 딱 데는 없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십자가를 내걸고 예배 보는 교회가 수십 만 군데나 있고, 우

리나라만 해도 느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다면 뭣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저 같은 것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오늘날 마귀는 대단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열 개 주시면 여러분에게 한두 개 갈까 말까 합니다. 나머지는 마귀가 모두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앞선 역사에서는 쉬웠습니다. 은혜의 창과 속에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드러날 때 마귀가 미처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앞선 역사를 말아 먹은 세력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선 역사 식으로 해서 마귀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곳이 자기가 이미 꺾어 버린 것과 똑같은 역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음 감람나무에게 똑같이 지시하여 일을 시키신다면,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종에게 극비의 지시를 내리시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전에 한 번 졌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 생각하고 들으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인격이 훌륭하고 잘나서 주님이 오늘까지 도와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늘에서 돕는 겁니다. 오늘날 마귀가 우리 역사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려움을 겪으면 누가 유리해집니까?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오

늘날 주의 종을 따라오면서 고생하지만, 과거에 한 증거의 성령을 받고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기 위해 순교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역사에서 쓴맛 단맛 다 보고 이 역사에 몸을 담고 저를 따르는 여러분인데, 내가 허술하게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이 나를 따르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적당히 얼버무리면 한 사람도 나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닳고 닳은 여러분입니다. 앞선 역사에서 단을 지키던 사람들이 이 역사를 외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영수가 생수, 안찰 운운하면서 감람나무라고? 박 아무개는 감람나무 아니었나? 박 아무개는 능력이 더 컸어. 그래도 갓잖아. 뭘 믿어? 또 속을 거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그들의 입에서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입장에 있더라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한 번 속으면 그만이지, 뭐 또 나와서 이려고저려고 해. 웃기지 말라고 해.” 이렇게 말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나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일반 종교 운동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육적으로 아무리 캐고 따져 봐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육적으로 암만 봐야 나와 여러분이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옛날 주님은 안 그랬습니까? 그는 육적으로는 목수의 아들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감람나무의 위상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 존재의 귀중성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앞선 역사가 꺾인 후, 그 세력이 모두 마귀에게 흡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여 마귀에게 빼앗겼을 때의 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보다 훨씬 더 불리한 입장에 계십니다. 그 마귀의 세력을 오늘날 우리 역사가 말없이 차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조건이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계화되어 갈수록 마귀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을 돌리려면 체계가 빨리 서야 합니다. 체계는 요컨대 하나님과 그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용기를 줘야 합니다. 옛날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들어 주었던 것처럼(출17:12) 말입니다.

Chapter 37.

하나님의 역사와 전략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서로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어둠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큰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계16:14)을 통하여 마귀를 완전히 소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갖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훼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영적인 움직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믿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주님의 의중(意中)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의중을 모르면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가령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에도 상

대방을 만족시키려면 상대방의 의중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나름으로 행동하면, 그 사랑은 자주 삐걱거리다가 결국은 깨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짝사랑이라면 문제가 큼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필요로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필요에 순응할 수 없고, 하나님의 필요에 순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외딴 무인도(無人島)에서 혼자 배고파 굶어 죽게 된 사람에게 금은보화가 있으면 뭐 하고, 자가용이 있으면 뭐 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음식 이외의 것은 산티미처럼 쌓여 있어도 그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사람에게 챔피언 벨트가 있거나, 박사 학위가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을 때,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투철한 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 20세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 기독교 신자가 10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신도들은 하나님과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

지만, 하나님과 주님은 이들을 필요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고, 마음에 위안도 되고, 하는 일도 잘되고, 병도 고치고 하여 예수가 생활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신앙관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주님을 필요로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는 하나님과 주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위해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도구로 쓰기 위해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도구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창6:7 참조)

지금 내가 이 단상에서 주님의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나도 주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이영수가 필요하여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하늘 군병을 배출시키지 못하면 이영수도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앞선 역사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박 아무개가 예뻐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인간을 각별히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실 때에는 반드시 요구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대가

를 얻게 되면 계속하여 사랑해 주시지만, 대가를 얻을 수 없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곧 떠나 버립니다. 앞선 역사의 경우가 그 산표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눈으로 보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믿는 자가 마귀와 싸우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원래 인간을 상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상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인간을 짓기 전부터 서로 상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와 싸우게 된다면 누구를 대신해서 싸우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짜 놓으신 각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내가 여러분에게 섭리다, 체계다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하는 저도 어렵고, 듣는 여러분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전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지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조롱해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물위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입니다. 그런 주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권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때 주님이 기적을 행하여 어떤 변화를 일으켰다면, 그 변화 자체는 놀라울지라도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는 것이 됩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전략이란

적을 이기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 싸우는 사람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는 일반인에게는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월남 전쟁 때 군병에게, 적이 땅굴 속에서 불쑥 기어 나온다, 나무 위에 숨어 있다가 총을 쏜다, 정글 속에서 뱀과 모기가 극성을 부린다, 등등을 미리 가르쳐 주고, 그 대비책을 설명해 줍니다. 그걸 알아야 싸워서 적을 무찌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쟁과 적의 내용을 알릴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이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마귀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싸워야 할 사람은 마귀에 관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영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마귀와 싸워야 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을 운운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마귀를 보기를 했습니까, 만지기를 했습니까? 여러분은 마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긴자를 내세워 주의 피권세로 하늘 군병을 단시일에 양성하여 마귀를 발등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략을 이긴자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략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너만 알고 있으라.”고 함구령을 내리고, 때가 되면 밝히라고 당부

하시는 것입니다.

따르는 여러분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신앙관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대로, 마귀와 싸우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쓰시려고 이곳에 불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곡성전을 지어라, 별관을 지어라, 뭉 해라, 하고 지시를 내리시는 것은 “예수여, 믿습니다.” 하는 신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믿는 것으로 족하다면,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대한민국만 해도 천여만이나 되는 교인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대로, 성도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참고 견디어야 합니다.(계13:10)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채찍에 얻어맞고, 가시관을 쓰고,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마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성서가 생긴 후로 주의 종이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가 보다 하고 듣지 말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 뒤야 합니다. 지난 2천 년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현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중에는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현재도 많습니다. 한평생 성스럽게 살아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이 오늘

날 이 단상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인간을 중간에 두고 3단계에 걸쳐서 싸운다는 말을 기독교 역사상 내가 처음으로 터뜨렸습니다. 모인 사람의 수도 얼마 안 되고, 신학대학의 문 앞에도 가 보지 못한 이영수가 하는 말이니까 세상에서 유명해지지는 못해도, 그 말 자체는 진리입니다. 내가 혼자 중얼거리다가 죽었다고 해도 그건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진리가 되고, 따르는 사람이 적다고 비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의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는 살아 있을 때에 초능력자로 활동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컨대 다니엘은 사자의 굴에 들어가도 물리지 않았습니다.(단6:21-22) 누가 같이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 주신 겁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야를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으나, 끄떡없이 지낼 정도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불담으로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이 살아 있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가 있는 동안은 마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게 되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못했습니다. 누가 데려갔습니까? 마귀가 데려갔습니다.(마27:53 참조)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주님은 당신이 십자

가를 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세세토록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14:16) 즉 인간이 살아 있을 동안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에 사람이 살아 있을 때도, 죽어서도 하나님의 신이 같이할 수 있었다면, 구태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디 유명한 목사에게 가서 물어보고, 훌륭한 신학자들이 쓴 책을 뒤져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사람이 죽어 얼마 안 되어 송장이 썩고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그 까닭을 알 길이 없지 않았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리적인 부패 현상이 아닙니다. 이상 중에 보니 썩히는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 주신 겁니다. “저것 때문에 썩는다.” 하셨기에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마귀를 물리쳐야 썩은 송장의 냄새가 그치게 됩니다.

그럼 마귀를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물리쳐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보여야 발길로 걷어차든지, 머리로 박치기라도 할 게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 “이는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눅4:6)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안에서 누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이 잘 믿었거나, 그 사람에게 공로가 있어서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회장, 장로, 권사가 세상을 떠나도 그 사람의 신앙 가지고 마귀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주의 종에게 오는 성령이 마귀를 물리쳐 주는 것입니다.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람나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가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었습니다.(유1:9) 그때 미가엘 천사장은 마귀를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람나무 시대는 마귀가 물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한 돌에 박힌 일곱 눈, 즉 일곱 영이 역사하게 때문입니다. 이 영이,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이 갓은 파란 속에서도 1년, 365일 쉬지 않고 저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되어 있습니다.(요16:8) 보혜사 성령이, 너는 이만저만한 죄를 지었다, 너는 이러저러해서 의롭다, 너는 여차저차해서 저주의 자식이다, 하면 그대로 됩니다. 이것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왔을 때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일반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죽으면 시체가 썩어 갑니다. 그러나 옛그제까지 범죄하던 사람이 오늘 이 역사에 몸담았다가 죽어도 주의 종이 축복한 생수로 아름답게 변하여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본인의 신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이긴자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러니까 이긴자를 통해 내리는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Chapter 38.

선한 싸움에 동참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과의 언약을 실천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셨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면 이것을 가로막는 상대방의 능력도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과 신의 전쟁을 뜻합니다.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전쟁이나 심지어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씨름 대회에서 상대방을 이기려면 그의 기법과 기술을 알아야 그 허점을 노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쪽에서만 생각할 때에는 만사형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적을 알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일방적인 생각이었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에 대비하여 모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에 대해 기록해 놓고 있습

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부각시킨 일방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다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후로 하나님 편에서 본격적으로 힘을 길러 가지고 마귀를 섬멸하는 전쟁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 자체가 크게 변한 것입니다. 여기 사용할 무기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귀가 미리 알았으면, 바울의 말대로, 이 전략에 말려들지 않습니다.(고전2:8)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치명타가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말씀하실 때,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계1:16) 검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전쟁할 때에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물론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는 주의 입에서 나옵니다. 즉 말씀이 무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무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마귀를 상대하여 싸우기 위한 종교 운동이 펼쳐질 때에는 그 전과는 양상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적이 있다. 그러므로 싸워 이겨야 한다.’고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넘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즉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에 놓였을 때 요긴한 것이 먼저 체계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양상에 적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귀를 상대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역사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 깨닫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속담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상대해서 싸우려면, 마귀의 굴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야 하는 사람이 마귀를 피해 판 데 가 있으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최대의 장애물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리고성을 부셔야 합니다. 이성을 피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4:7)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전략적인 말씀으로, 일반 사람들이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교회에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 나라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는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마귀와 큰 전쟁을 벌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는 반드시 이긴다고 했습니다.(계17:14)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도 싸워야 합니다. 이게 어디 보통 문제임

니까? 영광의 주님도 싸워야 하는데, 하물며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싸워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참된 신앙관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관이 서야만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귀와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 끝났다면 뭐 하러 또 싸우겠습니까? 하나님과 주님에게는 이처럼 싸워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일반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주님이 무엇과 싸운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진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싸움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펼쳐지는 우리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따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기 전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계2:7 등)라는 단서가 붙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 싸움에서 고도의 전략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왜? 적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놀라운 은총 속에서 이루어진 앞선 역사도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적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이것으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면 2천 년이나 끌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이 진작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쉽 리 이길 수 있는 마귀라면 구태여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다시 싸워야 하는 문제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나서야 하는 시대가 또 돌아오는 겁니다.(계19:11 이하 참조) 그렇다면 하나님의 조건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서기 전에 지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전쟁하시기 전에 주님과 함께 할 군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는 군대를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고 했습니다.(계19:14)

사람들은 하늘에는 영광스러운 일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군대’는 뽑힘을 받아 영광을 누리 는 사람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백마를 탔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는 말을 타고 전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핵무기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탱크도 있지만, 당시에는 말이 전쟁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군대가 필요한 것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것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적은 물론 마귀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일 북괴군과 대치하고 있지 않다면 60만이나 되는

군대를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저들이 쳐들어올까 봐 막대한 돈을 들여 대비하는 것입니다.

적이 없다면 하늘에서 뭐가 답답하다고 군대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계12:7) 인간의 전쟁입니까? 신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 군대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계6:11) 이런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주께서 군대를 기를 것을 당부하신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들어와도 연단을 겪어야 하므로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오늘날 세상은 음녀라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음란한 것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이 음녀를 이겨야 합니다. 음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음녀가 다스리는 세력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음녀를 상대하여 전쟁을 할 때, 그 군대는 당연히 음녀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 음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성도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계14:4)

그럼 음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그 지배권에서 끌어낼 수 있는 존재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가 바로 이긴자 감람나무요, 그 역사가 사실상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따르는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영의 생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망가진 앞선 역사를 수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는 오늘날 꾸준히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 하루에 3천 명씩 전도한 베드로는 위대해 보이고, 하루에 한두 명 전도하기도 벅찬 바울은 초라해 보였으나, 영적으로 더 큰 결실을 본 것은 바울이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귀도 신입니다. 그 신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신을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10만 명, 100만 명이 있어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 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마귀의 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신은 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악령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10만 명, 100만 명이 모인 곳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여기 선 한 사람이 하는지 아십니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즉 보혜사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육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고 했으니,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송장은 관속에서 썩어 가고 있는데 ‘머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고 찬송하고 “주의 품속에 안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딱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의 풍토입니다. 모르니까 일방적으로 위안을 받고 삽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에 몸담아 주의 종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니 어느 정도 아는 거지, 그렇지 않았던들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의 지시에 따라 신앙을 지키면 됩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 나름으로 판단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의 지시를 따르지 못할 때 안타까워 주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 나머지 문제는 주의 종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의 말을 거역하고, 주의 종이 하는 일을 휘방하면서 혼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 역사를 주의 종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섭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주의 지시대로 따르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축복한 생수를 시체에 바르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령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Chapter 39.

‘흰 돌’의 역할



믿음이 장성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이야기가 깊을수록 감명 깊게 들리겠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귀 밖으로 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육을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육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눈이 그쪽으로 쏠리게 마련입니다. 그 눈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돌리게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남에게 두들겨 맞아야만 아픔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시달림이야말로 곤장 몇 100대를 맞는 고통과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마귀가 여러분을 정신적으로 크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일반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으로 가르치고, 따라서 양떼들도 그렇게 알고 있

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無所不在)하여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성서를 인용하여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밝히고 있습니다.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되기 전에 천사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하나님께 보고하자, 하나님은 그 보고를 받으시고 “그렇다면 내가 내려가서 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창18:12)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상을 살피고 계시는 겁니까?

또 이사야는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시는 때에 그를 부르라.”(사55:6)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만날 수 있고, 아무 때나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시대도 있습니다.

스가랴 시대에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젖혀 두고, 젊은 종 스가랴와 그야말로 단독으로 대하여 당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하시고자 하는 섭리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서를 증거하는 일반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상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준행

하여 마음에 거리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 중에 스가랴에게 솟덩이처럼 까맣게 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 주셨습니다. 왜 솟덩이처럼 까맣게 되어 있었을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 있고, 사단이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슌3:1) 즉 마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더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는 이것을 보고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단아, 네가 내 종 여호수아를 이렇게 더럽혔구나.”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나는 수년 전에 설명한 적이 있지만,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말씀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우두머리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올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실 것을 빌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향내 나는 제사로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에게는 그 정도의 위력이 있었습니다. 그 권위는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런 대제사장이 사단에 의해 새까맣게 더러워져 있는 것입니다. 일반교회의 목회자들이 성경의 이 대목을 읽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니 그렇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그들이 지은 수백만 가지 죄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사단에게 더럽혀져서 새까맣게 된다면, 그 나머지 일반 제사장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그들이 훌륭한 사람이었던, 일반 백

성이었든—이 영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대제사장을 더럽히는 것을 천사가 막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실태입니다. 천사가 그걸 막을 수 있었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가랴는 새까맣게 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슌3:9) 즉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마귀가 이처럼 새까맣게 만든 것도 하루에 제하여 정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돌의 역할을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 일곱 눈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라고 보낸 일곱 영,(계5:6) 즉 완전한 영을 가리킵니다. 이 완전한 영은 마귀를 상대하여 싸우기에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 완전한 영이 이긴자를 통하여 부어 주는 보혜사 성령이며, 이긴자는 이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 군병을 배출시켜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짓게 되어 있습니다.(계2:28, 14:15-16, 요14:16 참조)

마귀를 완전히 꺾지 못하면 인간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럽히는 마귀를 꺾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음녀를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음녀를 제거하지 못하면 아무도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나 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모태에서 죄를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태어나 움막 같은 데 갇혀 살며, 평생 나쁜 것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밥만 먹고 살다가 죽더라도 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범죄는 없어도, 원죄와 유전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서 안찰을 받을 때 자기가 태어난 후에 지은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 유전죄도 소멸됩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이것을 되게 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신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두 감람나무의 출현을 예고해 주셨습니다.(슥4:14)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종이 나타나기 전에는 마귀가 더럽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장본인이 나타나 한 돌에 박힌 일곱 눈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지만, 한 사람 전도하려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하고, 한 사람을 주의 편에 세우려면 주의 종이 만신창이가 되어야 합니다. “네가 건축하는 알곡성전을 통하여 내 나라에 들어오는 길이 열린다.” 이

시대의 섭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하늘로 가는 길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체계가 선 사람에게는 반갑게 들릴지 몰라도, 체계가 서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의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자기를 통해야 된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단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도 이런 말을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단상에서 설교한 말씀 중에 반 이상이 내 말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던 말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나는 이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예수 믿도록 일반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양떼들은 이긴자 감람나무로 알고 따라야지, 일반교회 목회자로 알고 따르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이 조금씩 터득하여 주님과 직결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중간에서 심부름을 할 뿐, 주인공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연결되려면 중개 역할을 하는 주의 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 안 되는 것을 중간에서 되게 하는 것이 이긴자입니다.

Chapter 40.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자!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지으심을 받고 쫓겨난 후부터 어둠의 세력에게 지배를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세상을 어둠의 세력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류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문명이 발달하는 가운데, 인간에게는 지으신 하나님의 영향력보다는 빼앗아 간 어둠의 세력의 영향력이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상 시작부터가 어둠의 지배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여건을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은 아닙니다.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를 어둠의 지배에서 도로 빼앗기 위해 끊임없이 역사해 오셨던 것입니다. 아담, 하와를 마귀에게 빼앗기기 전에는 하나님에게 마귀가 도전했으나,

마귀에게 빼앗긴 다음부터는 주로 하나님이 마귀에게 도전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인간을 지었단고.”(창6:7) 하고 한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 것은 마귀에게 빼앗긴 인간을 다시 빼앗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신을 볼 수 없고 신은 인간을 뺏속까지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신이 인간을 알기는 쉬워도 인간은 신의 근황을 헤아리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언제나 신에게 굴복해야 하고, 추앙해야 하는 약자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의미에서 인간이 신을 돕는다고 말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의 내막을 깊이 알게 되면 ‘아하, 그게 아니구나. 신이 인간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구나.’ 하고 수긍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이 무조건 신에게 도움만 요청하던 자세에서, 신을 도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소 긍지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시는 신은 자기가 인간에게 도움을 받을 때 인간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도록 미리 연막을 치시는 것입니다.

몇 년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여 집중적으로 역사했으며,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군림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습니다.(왕하24:12) 그 후로 두 민족은 오늘

에 이르기까지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걸프 전쟁 때만 해도 바벨론의 후예인 이라크가 미국과 싸웠는데, 이라크의 후세인은 앙숙인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갈 때, 못나고 어리석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왜? 잡아가 봤자 식량만 훔치고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을 위시하여 왕족과 귀족, 고관, 학자 등을 끌어갔습니다. 그 나라가 인재를 잃어 맥을 못 추게 하여, 지배를 계속하기 위해서입니다. 6.25때 북괴가 우리나라의 저명인사들을 많이 강제로 납북한 것도 같은 의도에서였습니다.

페르시아가 들어서서 바벨론이 망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감람나무에 대해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젊은 종 스가라였습니다. 당시에 정계에서 중요한 인물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세운 유대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세웠습니다.(슌4:6-10)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지도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심을 북돋아 주기 위해 여호수아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정치적인 영도자로는 스룹바벨을 등장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하여 황폐한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 두 인물의 틈바구니에 스가라라는 한 청년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그 가

장 중요한 말씀은 감람나무에 대한 예언입니다. 즉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천사를 시켜, 이상 중에 감람나무라는 독특한 존재를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슌4:3) 이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비유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성전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종이고, 총독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권력을 장악하여 성전의 머릿돌을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두 사람은 감람나무의 사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라는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 지어다.”(슌4:7) 하였고, 이어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슌4:8-9)라고 증거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슌3:9) 이것은 앞으로 감람나무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신학자들은 두 감람나무는 모세와 엘리야니 어찌니 하고 말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규모가 어쨌든, 감람나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 역사는, 전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젊은 종 스가랴에게 지시한 것이, 네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하신 말씀에 따라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역사가 어떤 형태로 흘러가던 간에,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맞아 그 그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놀랍고 신비

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옛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올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기다렸으나, 막상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세상에 왔는데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두 인물을 놓고 감람나무를 설명하게 하셨는가를 좀 더 깊이 알아봅시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큰일을 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스가랴가 보는 이상에서,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여호수아는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는데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한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슌3:9)

그러므로 감람나무가 나타나면 성전을 짓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 많은 사람들이 “은총, 은총이 있기를!”(슌4:7) 하는 찬양의 소리가 진동할 것을 미리 예고한 것입니다.

앞선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한동안 은총을 부르짖고, 그야말로 은혜의 창과 속에서 기쁨에 넘쳤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기울어지자, “여호와와의 아시는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슌14:8)는 말씀대로, 그 뒤를 이은 두 번째 감람나무의 시대에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힌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한적한 곳에 거룩한 성전을 지어 내게 영

광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와서 두 감람나무가 나타난 것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이 이 역사에 부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는 하나님의 은총 말고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작은 밀알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우리 역사가 시작될 무렵에 세계 인구는 4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억 인구 중에서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내가 내 젊은 종 스가랴에게 한 말이 네 시대에 이루어진다.” 오늘날 세계의 160여 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감람나무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6천 년 동안 역사해 오신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마무리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기독교 국가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년밖에 더 됩니까?

그럼 한국에 감람나무라는 존재를 세우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국의 민족성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어차피 촛대를 옮길 바에는(마21:43 참조) 이스라엘과 비슷한 점이 많은 한국으로 옮기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순교자가 배출된 것도 감안하신 것으로 사

료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복 받은 백성이 된 거고, 어떻게 하다 보니 저와 여러분이 감람나무와 그 가지가 되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앞선 역사로 말미암아 불영광을 받으셨지만, 감람나무의 역사는 결코 매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숫자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 우리를 통해 독특한 역사를 이뤄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에 앞선 역사로 끝났다면 성경에 예언된 감람나무는 완전히 매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역사가 뒤를 이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기대를 걸고, 또 우리를 통해 내용적으로는 나름대로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지시 하셨을 때, 남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하나의 건축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건물 하나하나를 지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몸과 마음을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바칠 기회를 갖게 된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영광된 생명의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